

# 위(Wee) 뉴스레터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위(Wee) 뉴스레터



# 목차



봄호  
vol. 73

## |전문가칼럼|

- 학교가 중심이 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과 위(Wee) 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06
-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09
- 문제의 맥락 속에서: 학생 마음건강 위기 속 학교상담자의 역할 11

## |현장의소리|

- 울릉도에서도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 월릉이와 오맘이로 시작하는 첫걸음 14
- 사랑과 우정의 생활공동체 16
- 협력과 소통의 위(Wee) 클래스 만들기 18
- 위(Wee) 클래스 손에 위(Wee) 센터 손잡고, 지역사회로! 20

## |이슈브리프|

- 온오프라인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본 대한민국 위기청소년지원 사업 : 대한민국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책임지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 정책사업 22
-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적용하고 검증할 것인가 24



여름호  
vol. 74

## |전문가 칼럼|

- 우리나라의 학생 정신건강 관련 정책의 발전과 자원 28

## |현장의 소리|

- 언젠가는 슬기로울 상담교사 생활, 함께 가고 싶습니다 30
- 세상에 혼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 관계 증진, 소통 기회 만들기 3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해봄 35
- 한국 학생 정신건강 정책 및 자원 38

## |이슈브리프|

- 위기의 교실을 넘어 : 학생마음건강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41



가을호  
vol. 75

## |전문가 칼럼|

-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한 학교상담의 과제 46
- 정서행동 위기,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서울특별시교육청 PBS 이야기 48

## |현장의 소리|

- 내 마음에 따뜻한 불을 켜다 : 마음건강행김학교 운영 이야기 51
-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심는 우리 "SWeeT, 구미 위(Wee) 센터" 53
- 위(Wee) 센터 컨설팅 소회 56

## |이슈브리프|

- 청소년 중독문제의 실태와 예방 및 치료방안 61



겨울호  
vol. 76

## |전문가 칼럼|

- 학생의 마음을 지킨 힘, 함께 만든 회복의 여정 66
- 아름다운 동행 68

## |현장의 소리|

- 겨울, 아이들의 마음을 데우는 시간 - 대구매곡초등학교 위(Wee) 클래스 이야기 70
- 학교 곁에서 함께 숨 쉬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73
-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우리(Wee) 76
- 참사랑도담학교 78
- 2025년 학교상담 리더 양성 연수 참여 후기 81

## |이슈브리프|

- 함께 성장하는 학교상담, 학교상담 리더의 길을 열다 84
- 청소년의 마음 길잡이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와 시사점 88



# 위 Wee 프로젝트



마음 먼저 챙겨요

2025년 봄호

# Vol. 73



## 미리보는 위(Wee) 뉴스레터

### 📖 전문가 칼럼 • 02

**학교가 중심이 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과 위(Wee) 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립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훈호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계열 교수 박상용

**문제의 맥락 속에서: 학생 마음건강 위기 속 학교상담자의 역할**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조교수 허난설

### 📢 현장의 소리 • 10

**울릉도에서도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울릉이와 오مام이로 시작하는 첫걸음**

인동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이수미

**사랑과 우정의 생활공동체**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가정형 위(Wee)센터 센터장 김진영

**협력과 소통의 위(Wee) 클래스 만들기**

진접중학교 전문상담교사 박종권

**위(Wee) 클래스 손에 위(Wee) 센터 손잡고, 지역사회로!**

덕은한강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이진경

### 📖 이슈브리프 • 18

**온·오프라인 청소년안정망을 통해 본 대한민국 위기청소년지원 사업: 대한민국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책임지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정책사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본부 본부장 노성덕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적용하고 검증할 것인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오인수 | 국립청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현수 | 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육대학 교수 반지윤 | 경일대학교 교육학

신처 교수 이보람

## 위(Wee), 알려드립니다



### 📖 위(Wee) 뉴스레터 원고 모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에서는 위(Wee) 프로젝트의 정책, 운영 현황, 성과, 우수사례, 행사 안내 등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위(Wee)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수록될 원고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 위(Wee) 프로젝트 관련 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 **제출방법** | khain1225@nypi.re.kr 로 제출 **문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김혜인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발행인 백일현 편집인 김영지 편집담당 김해인·주예찬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  
전화 044-415-2258 이메일 khain1225@nypi.re.kr

전문가 칼럼

# 학교가 중심이 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과 위(Wee) 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립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훈호



그동안 추진되어 온 교육복지 또는 청소년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선제적 혹은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나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의 대상 또한 특수교육 문제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 범위를 매우 좁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 또한 최소한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8월에 발표된 정부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관계부처합동, 2024)'이나, 같은 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성장기 학생의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이나 지원,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와 교육행정 기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 및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교육(지원)청 및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전문 컨설팅단과 함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개편 시범사업을 통해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안전망을 더욱 체계화하고 관련 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위기학생 조기 발견·지원 강화 정책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변화 중 하나는 '학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며, 전문상담교사나 교육복지사 등 특정 업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학교장을 중심으로 전체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연계·협력하는 '통합 지원'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선도학교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이길재 외, 2024), 마음건강을 비롯한 학생 맞춤형 통합 복지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는 대부분 학교장이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조정 및 지원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 마음건강을 비롯한 심리·정서적 지원이나 복합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며, 학교 전체가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가능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관계부처합동, 2024)'에 포함된 교원 대상 의견수렴 결과에도 잘 나타납니다.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의 지원이 필요" 하다는 점,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관리자 역할 강화가 필요" 하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요컨대,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리자들은 위기학생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지원 요구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아마도 그러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마음건강 상태나 지원 요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 지원이나 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이상적인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중심'의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기능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학교 중심'의 맞춤형 학생 지원 체계는 '학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기 민망할 정도로 학교는 과부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만으로는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학생의 대부분이 한 가지 위기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 본 칼럼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뒤얽힌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 한 번의 지원 또는 어떤 한 가지 지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학교 중심'의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는 학교 구성원들의 연계·협력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차원의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가급적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행·재정적 자원이 신속하게 연계·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연계'와 '협력'이 단순히 MOU 체결이나 포괄적인 지원 및 협조 약속만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가 인적·물적·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학생의 지원 요구 유형에 따라 체계화하고, 학교가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사안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조직의 어떤 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면 가능한지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조정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구축하고 있는 '청소년안전망'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의 교육취약학생 발굴 및 통합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교육복지안전망'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이분법적 구분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원이 가장 절실한 학생은 학교 안과 밖의 경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바, 청소년안전망과 교육복지안전망이 정교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두 개의 안전망 사이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두 안전망이 실질적으로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나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의 지원 요구를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행·재정적 자원을 확보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원 과정이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 또는 직접 사례관리 전환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교육지원청 내에서 누가 수행할지입니다. 현재 각 교육청마다, 심지어 한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에 따라 교육복지나 마음건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천차만별이고, 이들의 관계나 업무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최근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증가하면서, 기존 위(Wee) 센터나 기초학습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등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졌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운영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교육비, 위(Wee) 프로젝트, 기초학력, 학교폭력예방, 학업중단예방, 아동학대예방, 다문화, 장애학생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조직 정비와 업무 체계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점은 2024년 12월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각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제8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에 의해 설치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범위에는 기초학력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14개 이상의 교육복지 관련 사업 및 정책들이 포함되며, 이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각 교육지원청마다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복지지원 2개	경제지원 2개	학업지원 4개
연계사업	-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 교육복지 안전망	- 교육비 - 교육급여	- 기초학력 - 학업중단 예방 - 대안교육 - 미인정결석
구분	심리·정서지원 1개	안전지원 3개	기타지원 2개
연계사업	- 위 (wee) 프로젝트	- 아동학대 예방 - 학교폭력 예방 - 성희롱·성폭력 예방	- 다문화 - 특수

다만, 이를 계기로 '학교 중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적절히 구축되고,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각 센터들이 전문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나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에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업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서 총괄하되, 위(Wee) 센터를 비롯한 각 분야별 센터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에 대한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센터 간 관계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위기 요인들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Wee) 센터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위(Wee) 센터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위(Wee) 센터의 핵심 기능을 학교에서 요청한 학생들에 대한 직접 사례관리에 둘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설치된 위클래스가 학교장 중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함께 위

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support)'하고,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등에게 전문적 자문을 제공(supervising)하는 역할을 중심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Wee) 센터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수석교사 정원 중 일부를 전문상담교사에 배정하고 선발된 수석교사(전문상담교사)를 위(Wee) 센터 실장에 포함으로써 관내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등에 대해 전문적 자문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석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컨설팅이나 신규 및 저경력 교사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보상으로 수업시수 50% 경감과 월 40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겠지만, 수석교사로서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등에 대한 장학 및 컨설팅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위(Wee) 센터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향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 및 학교 중심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추진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컨대, 학생이 겪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학습, 관계, 생활 과정에서의 다양한 지원 요구를 조

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또는 담임교사가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학생의 위기 상황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학교 구성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의 전문성이 적절히 결합해야 비로소 위기 극복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위(Wee) 센터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더욱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기학생과 그 가정에 보다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4). 학생 마음건강은 키우고, 교사 마음부담은 줄이는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 이길재, 김영삼, 김훈호, 신연옥, 심현기, 정바울, 최정운 (2024). 학생맞춤통합지원 모델 고도화 연구. 충북: 한국학교컨설팅협회.



전문가 칼럼

#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계열 교수 박상용

Newsletter



6시 55분... 고3 아들이 짜증을 내며 아침부터 엄마와 한 판을 벌인다. 7시에 일어나려 했는데 엄마가 5분 일찍 깨웠다는 게 그 이유다. 이렇게 휴일 이른 아침에도 평온과 평화는 귀하다. 정작 개학은 내일인데... 앞으로 매일 펼쳐질 장면의 예고편을 본 듯 벌써 아찔해져 온다.

사는 모양이 이렇진대 전문가 칼럼이라니! 부끄러움이 앞서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넓은 아량을 기대하며 짧은 몇 가지 이야기를 엮어 전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 하반기, 대구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던 결과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하루빨리 학교가 정상화되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내 연구의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내 관심은 예상과 달리 학교에 가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오히려 행복해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대략 10~15%의 아이들에 있었다. 대체 왜 그런 걸까? 궁금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이 아이들이 자살 충동이나 자살시도를 경험했던 소위 정서적 고위험군이었거나 우울, 불안 등이 상대적으로 심했거나 아니면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보고서를 쓰면서 눈물이 흘렀던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어떤 아이들에게 빨리 돌아가고 싶은 학교지만 또 어떤 아이들에게 아무도 말 걸지 않고, 책상에 칸막이가 있고 식당에서도 각자 조용히 밥 먹고,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훨씬 마음 편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다시 일상을 찾은 학교에서 이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끔 궁금하다. 다른 사람의 눈과 관심에서 벗어난 일상을 보다 편하게 생각했던 투명 인간으로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했던 아이들을 이젠 제대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마을에 사는 발달장애 아동에 관한 이야기다. 몇 해 전 주말 저녁,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식사를 기대하며 동네 횡집에 들렀는데 아이가 그만 수족관을 깨뜨려 버렸다. 아이는 강이나 바다에 살아야 할 물고기들이 좁은 수족관에 있는 게 너무 불쌍해 보여 구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부모와 가게 주인은 말을 잃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다. 누구네 아이 덕분에 횡집이 넘쳐나니 모두 마을카페에 모여 회파티를 벌이자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 수십여 명이 모여 즐겁게 회를 실컷 먹을 수 있었고 망가진 수족관을 배상하고도 남은 만큼 식대도 모였다. 아이도 부모도 횡집 주인도 아무도 곤란한 사람이 없었고 마음을 다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 덕분에 모두 한 데 모여 즐겁게 식사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물고기의 마음을 읽어낸 아이를 칭찬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우리가 그 세상을 볼 수 없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가메다 종합병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 병원은 해안가 작은 마을에 있지만 2024년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중 하나다. 그만큼 가메다 병원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는 병원의 모습과는 다르게 많은 감동과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병원은 1985년 일본 민간병원 최초로 구급구명센터로 지정받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시골 마을에 환자가 발생했는데 도심의 종합병원으로 3시간 이상 이송하는 과정에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가메다 병원은 '우리 마을에서 제시간에 치료받지 못해 귀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도록 하자!'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시설과 장비를 구급구명센터로 지정받는데 손색이 없도록 갖추었다. 그리고 대개 병원들이 영안실을 지하에 두지만 가메다 병원의 영안실은 가장 높은 13층에 위치해 있다.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라는 게 병원의 설명이다. 이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치료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라는 답이 따라왔다. 그리고 또 들었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래서 떠오른 생각이 영안실을 천국

※ 본 칼럼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가장 비싼 입원실을 비우고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가장 마음이 힘든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두서없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일부러 글의 의도를 명확히 하진 않았다. 읽는 분들의 각자 다른 배경에서 다양하게 읽고 해석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가장 마음이 힘든 환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던 가메다 병원처럼 우리 학교도 매일 교문을 드나드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무겁고 힘든 학생'이 누구인

지를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 좋겠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살피는 과업이 위(Wee) 프로젝트의 사명이고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3월이다. 다시 아이들이 온다.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어썰픈 봄날, 엄마와 신경전을 벌이며 버거운 아침을 맞이했을 법한 아이들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루하루가 즐거울 수 있기를... 선택 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했던 말처럼 진정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부디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을 소중히 들여다볼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전문가 칼럼

# 문제의 맥락 속에서 : 학생 마음건강 위기 속 학교상담자의 역할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조교수 허난설

Newsletter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기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2023년 학생 자살률이 10만 명당 4.1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일보, 2024.9.26.). 코로나 사태 이후 자살률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표도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주요 사회적 요인으로

SNS 사용과 청소년 정신건강의 연관성(Weigle & Shafi, 2023),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보호적 양육 태도와 그로 인한 자녀 세대의 불안 증가(Haidt, 2024), 사이버 불법 도박 및 중독성 물질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증가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 속에서 각국의 학교 기반 마음건강 위기 대응 정책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 마음건강 위기 속에서 학교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사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학교상담 분야도 이 질문과 관련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 제목만 보아도, 현재 논쟁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상담자 역할에서 상담을 빼는 것은 누구인가?”(Lambie et al., 2019), “기타 지정된 업무로 보는 고등학교 학교상담자의 모호한 역할”(Blake, 2020), “학교에서의 자살 위기 대응: 학교상담자가 아니라면 누가?”(Gallo & Wachter Morris, 2022) 같은 제목들은 학교상담을 둘러싼 논쟁의 깊이를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학교상담자의 역할 규정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이 더 있다. 우선, 학교상담자의 정체성과 직무 모델은 각 국가의 심리상담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다수의 국가에서 국가 수준 정신건강 대응 체계는 위기 수준에 따라 3단계(tier)로 나뉘며, 학교는 학생 마음건강을 담당하는 1차 기관으로 규정된다(Ladegard et al., 2024). 따라서 2차 및 3차 기관의 역할이 명확할수록,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도 분명해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각기 다른 직무 모델을 기반으로 2차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기관이 많으면 지원이 늘어날 것 같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그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계실 것이다. 학생의 문제에 따라 통합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서비스가 한 기관 내에서는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없고, 기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연계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했던 관계를 상실하기 쉽고, 어디에도 의뢰할 수 없는 특정 문제나 대상의 범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상담자의 훈련 모델과 선발 방식은 오랜 기간 변화하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직역이 법제화되고, CACREP과 같은 교육과정 인증을 통해 석사 수준 훈련 과정의 책무성이 강화되어 왔다(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이에 따라 학교상담 석사 과정의 표준도 꾸준히 변화해 왔다. 1985년부터 2016년까지 CACREP 교육과정 인증 기준이 여섯 차례 개정되면서, 학교상담 프로그램은 지식 중심에서 성과 역량 중심으로 변화했고, 상담 인턴십 및 직접 상담 실습 시간의 필수화, 데이터 활용과 지역사회 협력 강조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Akos & Duquette, 2022).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전문상담교사 2급 및 1급 교육과정과 실습제도 개편이나, 지속적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학교상담자에 적합한 인사 제도 개편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하규영 외, 2022). 이로 인해 현장의 선생님들과 대학교수님들이 자구적으로 노력하며 교육과 실제 실무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 마음건강 위기 속 학교상담자의 역할이라는 질문은 시대적 난제처럼 느껴진다. 이에 질문의 방향을 바꿔 ‘학교상담이 학교상담일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한 바를 이 글을 통해 공유해 보고자 한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계 기반 제공

첫째, 학교상담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연구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마음건강 위기를 겪는 많은 학생이 외부 서비스와 연계되는 과정에서 정작 학교에서는 지지적 관계 기반을 상실하기 쉽다는 것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상담 관계의 효과는 상담 기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Wampold, 2015), '삶의 중요한 한 토막을 같이 가는 동반자'인 어른의 존재와 '정서적 끈끈함의 활용'은 상담 성과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학교상담실은 학생과 교사들이 생활하는 곳에 자리하며, Walk-in 기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부 기관에서의 정기 상담과 집중적인 심리 개입도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심하게 다툰 날, 내가 유독 싫은 날, 친구에게 들은 말이 소화되지 않는 날, 학생들이 절실히 대화 상대가 필요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학교상담실에서의 따뜻한 대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살 예방 기제라 할 수 있다.

### 유연하고 창의적인 개입 방식의 적용

둘째, 통합적 학교상담 모델(comprehensive school counseling model)의 핵심은 학교상담자들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개입 방식의 적용이다. 전학교적 접근, 통합적 학교상담 모델 등은 학교상담의 정체성과 함께 자주 언급되어 왔다(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통합적 학교상담 모델이 내포하는 의미는 여러 층을 이루고 있지만,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학교상담자들이 자문, 조정, 리더십 등을 활용해 개인상담 이외에도 다양한 개입 모드를 통해 심리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타인의 의도와 행동을 추론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사회성 집단이라는 직접적인 명칭이 아닌 취미 기반의 소그룹 활동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중재하거나, 교실 이탈 행동이 잦은 학생의 촉발 요인을 관찰하여 담임교사와 논의하는 것도 이러한 개입 방식의 한 예이다. 특히, 부모나 교사가 일상 속에서 학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 활동은 여러 장애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김지연, 2019),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긍정적 영향이 크다(Gallo, Bardhoshi, & Raush, 2020).

### 문제 맥락 속에서의 개입

셋째, 학교상담자들은 학생의 호소 문제 발생 맥락 속에서 개입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학교상담자들의 활동 특징 중 하나는, 문제의 맥락 자체에 개입하는 점이다. 상담자들은 수련과

정에서 내담자의 통찰을 촉진하는 것이 상담의 핵심 태도임을 배운다. 하지만, 위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이 어릴수록, 가정이나 기질 요인의 영향이 강할수록 이러한 변화 메커니즘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심리적 위기가 장기적인 패턴으로 굳어진 경우, 학생이 자신의 자원을 키우기보다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때 학교상담자는 학생의 담임교사, 교과 교사, 교실 문화 등을 직접 관찰하고, 부모 등 주요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며 문제의 맥락 자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강점을 갖는다.

### 마무리하며

마음건강 위기의 한복판에서 학교상담자들은 늘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가운데, 학교상담자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날은 학생과의 따뜻한 대화 한 마디가 위기의 순간을 넘기게 하는 결정적인 힘이 된 듯하여 보람을 느끼지만, 어떤 날은 행정적 요구와 복잡한 연계 체계 속에서 소진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교상담은 학생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시대가 변하고 정책이 바뀌어도, 학생들에게 따뜻한 어른 한 사람이 되어주려는 학교상담 선생님들에게 이 글이 작은 응원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지연 (2019). 전문상담교사 자문 역할 수행의 장애 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20(2), 253-279.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미국의 전문상담사 (LPC)와 인증프로그램 (CACREP)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1-15.
- 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한국적 학교상담 모형 개발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학교상담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39-567.
- 하규영, 이지향, 이지원, 전은경, 박지수, 허난설 (2022). 예비 전문상담교사 학교 현장실습 운영 개선을 위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23(6), 49-75.
- 한국일보 (2024.9.26.). 작년 초중고 학생 자살 214명, 역대 최고치... 8년 만 두 배 늘었다. 한국일보. [온라인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610390005510]

Akos, P., & Duquette, K. (2022). *Trends and changes in school counselor CACREP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chool-Based Counseling Policy and Evaluation, 4*(1), 1-10.

Blake, M. K. (2020). *Other duties as assigned: The ambiguous role of the high school counselor. Sociology of Education, 93*(4), 315-330.

Gallo, L. L., Bardhoshi, G., & Raush, M. (2020). "That is when my life changed for the better": Students' perceptions of exemplary school counselor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Counseling, 6*(1), 1-17.

Gallo, L., & Wachter Morris, C. A. (2022). *Suicide intervention in schools: If not school counselors, then who? Teaching and Supervision in Counseling, 4*(2), 6-24.

Haidt, J. (2024). *The anxious generation: How the great rewiring of childhood is causing an epidemic of mental illness.* Penguin Press.

Laidre, K. L., Zahn, M. J., Simon, M., Ladegaard, M., Stafford, K. M., Phillips, E., Moon, T., Stern, H. L., & Cohen, B. (2024). *Narwhal (Monodon monoceros) associations with Greenland summer meltwater release. Ecosphere, 15*(10), e70024.

Lambie, G. W., Stickl Haugen, J., Borland, J. R., & Campbell, L. O. (2019). *Who took "counseling" out of the role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chool-Based Counseling Policy and Evaluation, 1*(3), 51-61.

Wampold, B. E. (2015). *How important are the common factors in psychotherapy? An update. World Psychiatry, 14*(3), 270-277.

Weigle, P., & Shafi, R. M. A. (2023).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Current Psychiatry Reports, 26*(1), 1-8.



 **현장의 소리** 위(Wee) 센터

## 울릉도에서도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 월릉이와 오뎀이로 시작하는 첫걸음

인동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이수미



겨울의 끝자락, 여전히 바람은 매섭지만 울릉에서의 2년을 돌아보는 제 마음은 따뜻합니다. 정든 울릉을 떠나며, 지난 제13회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울릉 위(Wee) 센터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작은 섬에서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울릉도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고요합니다. 섬은 늘 조용하고 한적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고민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령을 받았을 때, 저는 이 작은 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자연 속, 고립된 환경에서 그저 홀로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릉도는 작은 섬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이곳에서 '상담'이란 개념은 낯설고, 아이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불편해합니다. 마치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위(Wee) 센터가 단순한 상담 기관이 아닌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사랑방'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담 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담실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울릉 위(Wee) 센터 전용 로고와 마스크트를 탄생시키기로 했습니다. 예쁘고 귀여운 캐릭터가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울릉의 산과 바다를 담은 직

관적인 로고를 만들고 포근한 북극곰과 울릉도를 대표하는 오징어 캐릭터에 재치 있는 스토리를 입혀 친근함을 더했습니다. 마스크트들은 그렇게 '이름짓기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지은 '월릉이', '오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월릉이'는 빙하를 타고 울릉도로 떠내려온 북극곰 가족의 아이로, 아름다운 울릉도의 자연과 인간의 맑고 순수한 마음에 반해 정착하기로 결심한 낭만가입니다. 그의 취미는 아이들과 수다 떨기이며, 특기는 오징어로 땀을 닦는 것입니다. 월릉이가 흘리는 땀의 의미는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한 노력과 극복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은 울릉도(Ulleungdo)와 위(Wee) 센터를 합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뎀이'는 월릉이의 땀을 닦아주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오징어 캐릭터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인데, 울릉군의 특산물인 오징어를 활용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L**



**O**

저는 마스크트를 제작에만 그치지 않았는데, 제 전략은 마스크트 굿즈를 통해 위(Wee) 센터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스티커를 제작해 행사에 활용하고 월릉이와 오뎀이 벽화를 그리기

**V**

**E**

도 하며 홍보물품으로 제작한 포스트잇, 가방, 우산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학생에게 나눠준 물건을 학부모님들이 들고 다니기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울릉도 거리에서는 점차 월릉이, 오뎀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흐르고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위(Wee) 센터에 기웃거리는 학생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원래 위치를 설명하기도 어려운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문 앞을 서성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슬쩍 다가가 ‘간식 줄까?’ 물어보면 씩 웃으며 들어와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까지 연계되는 일이 빈번하지는 않았지만, 이 작은 발걸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외에도 순회 상담 신청 비율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행사 참여도를 비롯해 학부모님들의 상담에 대한 관심 역시 상당히 높아진 것을 느낍니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라도 용기를 내어 상담을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담이 꼭 정해진 시간과 형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가 무심코 건넨 한마디, 간식을 집어 들며 툭 내뱉은 말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든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아이를 다 돕진 못해도, 단 한 명이라도 용기를 내어 다 가온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상담실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아이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려 합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언젠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힘내길 응원합니다.



 **현장의 소리** 가정형 위(Wee)센터

# 사랑과 우정의 생활공동체

대전광역시교육청여학생가정형 위(Wee)센터 센터장 김진영



## 대전시교육청여학생 가정형 위(Wee)센터는?

종업식, 졸업식으로 1월을 마무리하고 아이들로 북적거리던 센터가 모처럼 한가롭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며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즈음에는 대학생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한 예전 입소 학생들이 반갑게 찾아와 놀다 가기도 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한 친구들은 한껏 예쁘게 꾸미고 맛있는 것을 사서 오기도 하여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여학생가정형 위(Wee)센터 모습

대전시교육청여학생가정형 위(Wee)센터(이하 대전여가위)는 한남대학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름다드리나무가 많은 넓은 마당과 아기자기한 정원, 아늑하고 깨끗한 저택의 모습에 오시는 분들마다 "내가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학 내 위치해 있어 더욱 좋은 점은 학생들이 대학가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각종 협약들로 대학의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관련 학과 학생들의 실습과 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소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공동체 생활을 통한 건강한 관계경험의 중요성

대전여가위는 대전의 유일한 여학생 기숙형 위탁 교육시설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부적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

생들이 가족으로부터 잠시 분리되어 센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부모와 같은 교사, 따뜻한 생활실, 정성스러운 집밥 등 건강한 가정적 돌봄을 경험하고, 교육과 상담을 받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합니다.

우리 센터는 공동체 생활에서의 관계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우정을 통해 바른 어른(교사)의 삶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24시간을 함께 생활하며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고 체득해 나갑니다. 이렇게 센터의 안전한 환경에서 습득한 관계 경험은, 퇴소 후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여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상담을 통한 교정적 정서 체험(재양육의 과정)

우리 센터에서의 상담은 학생들의 생활, 행동, 사고 등에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소거시키고 바람직한 것을 새롭게 익히는 재양육의 과정입니다. 재양육의 과정을 원가족 안에서 익힐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센터에서 교사들이 상담과정을 통해 (양)부모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상담(변화) 과정이고, 재양육의 과정이라 합니다. 센터는 아이들을 효용성이 아닌 존재 그 자체를 수용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지지해 줍니다. 꾸준한 마음 나누기 연습을 통해 본인의 감정을 알아채고 말로 표현하며,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센터는 상담(재양육의 과정)을 통해 본인의 결핍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후원합니다.



가족강화 캠프

### 부모와의 관계 회복

가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 회복과 안정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센터는 아이를 부모와 함께 양육한다는 개념으로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건강한 가정 양육을 위한 든든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적 위기 상황에서 긴급 가정방문 상담과 귀가 지원 이벤트로 깜짝 방문하여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후원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수시 부모 상담, 정기적인 부모교육, 가정방문, 가족강화캠프, 발표회 등 부모의 참여를 독려하며 서로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가정폭력신고,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치하여 가족 간 관계가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제주 로드스쿨

###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에너지 축적

우리 센터의 최종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하여 다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교와 동일한 수업시간표에 따라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즐거운 수업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온전히 참여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체계적으로 짜인 일과표에 맞추어 바른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취침 전에는 스스로 핸드폰을 제출하고 모두 모여 서로의 마음 나누기를 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이는 타인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조망수용능력을 발달시켜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추후 학교 복귀 후에 관계에서 오는 갈등 상황들을 스스로 해결할 힘을 길러줍니다.

### 입소 후, 보호-상담-교육의 체계적인 관리

학생들이 입소 후 퇴소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중점사항을 달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류	중점사항	주요 내용
안정기	안전	규칙적인 생활 및 식사, 소그룹 반 배정, 팀 카운슬링, 소그룹 수업, 반별 조회, 반별 활동
		입소 후 1-2주 기간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센터에 적응하기 위한 단계
치유기	관계	개인상담, 집단상담, 보호자상담 및 교육, 종합심리검사, 가족강화프로그램, 캠프(4박 5일 로드스쿨, 1박 2일 낭만 캠프·야영 체험 여행 등), 체육대회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내적 취약성을 알아가는 단계
성장기	즐거움	대안교과수업, 봉사활동, 자치회의, 발표회, 갈등상황 조정 및 해결, 학교적응기술
		문제 해결방안을 적용하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



부모교육과 체육대회

### 가족-학교-센터와의 유기적인 관리

가족-학교-가정형 위(Wee)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퇴소 후의 일상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분류	중점사항	주요 내용
가족 회복	상담	수시 및 정기적 부모 상담(주1회 이상)
	교육	분기별 부모 교육, 연 1회 가족강화캠프, 발표회
	책임 수행	지역사회로 확장한 노인시설(요양원) 봉사 부모와 함께 국립묘지 청소(묘지 닦기)
학교 적응	상담	수시 연락 체계(상담교사, 담임교사)를 구축하여 학생의 일상 및 위급 시 상황 공유
		교사의 월 1회 센터 내방을 의무화(입소신청서류 기재)하여 학생의 학교와의 단절감 예방
	교육	시험 및 평가 외 필요시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협의
복귀 연습	위탁 종결 2주 혹은 4주 동안 학교 등교 훈련 후 복귀	

 **현장의 소리** 위(Wee) 클래스

## 협력과 소통의 위(Wee) 클래스 만들기

진접중학교 전문상담교사 박종권



위(Wee) 센터는 상담이나 행사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방법들을 나누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전문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기관들과도 만나며 서로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Wee) 클래스는 구성원이 상담교사 한 명뿐이라, 소위 '고군분투(孤軍奮鬪)'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4~5건 이상의 위기 학생 상담을 진행하거나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도 쉴 틈 없이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해 행사를 운영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 시간이 쫓기듯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위기 학생 상담 사례에 대해 상담가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수록, 언젠가는 저 스스로가 소진되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힘이 아닌 학교 내 선생님, 지역사회 전문 기관 및 인력들과 협력을 도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 교내 부서 간 협력과 프로그램

우선 학교 내에서 협력을 도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다면 실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교의 부장교사 및 여러 부서 선생님들의 공강 시간에 찾아가 담소를 나누고,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함께 하며 점차 유대관계를 쌓아나갔습니다. 특히 학기 초와 학기 말에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 지원했

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는 행사들을 파악하고, 이를 위(Wee) 클래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위기 학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해서는 교직원 연수 시간이나 업무 메신저를 활용해 위기 학생을 이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상담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실제 위기 학생이 발생했을 때는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 상담가의 입장에서 확인한 부분을 관리자와 담임 및 부장 선생님에게 공유하며 다각도에서의 지원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 상담의 중요성과 상담 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선생님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 안전부 선생님과 함께하는 힐링 교실'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안전부에는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 도덕 선생님이 계신데, 각 선생님의 교과 및 업무 특성을 접목해 힐링 교실을 진행한 것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의 간단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제가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과 함께하는 나만의 향수 만들기'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상담동아리 학생, 민주시민부서 소속의 학생회 임원 학생들이 협력하여 '생명 존중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 학생들 간의 교류도 활발하고 행사가 더욱 풍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담 동아리에는 섬세하면서 조용한 친구들이 많아 남 앞에 나서는 캠페인이나 행사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밝고 적극적인 학생회 학생들과 교류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 지역사회 전문인력과 협력한 프로그램

제가 있는 학교는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하여 학생들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체험하러 가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근처에서 체험이 가능한 기관들이 필요했는데, 우선 인터넷을 통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파악한 후 퇴근 이후 직접 학교 주변 지역을 운동 삼아 걸어봤습니다. 다행히 정문 앞 200m 거리에 위치한 꽃집과 카페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진로 체험에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후 사장님들과 협의하여 '사제동행 원예 체험 프로그램'과 '바리스타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앞이다 보니 사장님들이 학교로 방문하거나 학생들과 직접 매장에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제동행 원예 체험' 프로그램에는 '위기관리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담임 선생님과 해당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게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마음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충전되어야 위기 학생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기 학생들도 담임 선생님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며 든든한 지지체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이 점 역시 하나의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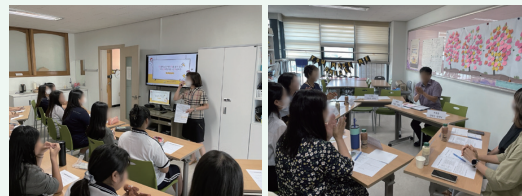


### 지역 사회 기관 및 인근 학교 상담 선생님들과의 협력

지역 사회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Wee) 센터' 등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의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접속해서 살펴 보거나 사업 관련 담당자들과 통화해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 기관에서 주최하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관련 담당자들과 대면하여 협의하다 보면, 기존에 없었던 프로그램들이 구상되거나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기관 담당자와 함께 행사나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저 역시 그분들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구리남양주 위(Wee) 센터'에서 상담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권역별 위기 지원 상담 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위기 학생 상담사례를 나눌 수 있는 전문적인 기회가 적어 아쉬움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 권역 중 저희 권역 대표를 담당하며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학생 사례들을 나눌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했습니다. 협의회는 타 학교 위(Wee) 클래스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특정 학교가 아닌 다양한 곳으로 구성하여 진행했고, 위기 학생 상담사례와 더불어 위(Wee) 클래스 운영 전반에 관한 어려움과 행사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일 권역별로 묶여서 만나다 보니 동질감을 느끼며 지역의 특성과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의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여러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소통하니, 스스로에 대한 소신 예방과 함께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위기 사안이 예방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힘든 환경에서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면 초기에는 지금 상황보다 더 힘들고 바빠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번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협력과 소통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더욱 효율적인 일 처리와 위기 학생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교내 선생님들과의 유대감이 깊어져 상담에 무관심했던 선생님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함께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협력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학교 및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현장의 소리 위(Wee) 센터

# 위(Wee) 클래스 손에 위(Wee) 센터 손잡고, 지역사회로!

덕은한강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이진경



## 고양 위(Wee) 센터 소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는 2024년 4월에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교육지원청 부설)로 이전하였습니다.

개인상담실(4개), 임상심리실, 놀이치료실, 미술치료실, 모래놀이치료실, 집단상담실, 교육실 등 상담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상담 수요가 많은 고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학생 수와 상담에 대한 높은 수요 및 개방적 인식과 태도 덕분에, 순회상담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위(Wee) 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내방상담에 집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08년부터 시작된 위(Wee) 프로젝트 사업은 어느덧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는 위(Wee) 클래스가 설치되었고, 전문상담교사의 숫자도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위(Wee) 클래스 배치교가 확대되었지만, 위기 사안의 증가, 학생 심리정서적 어려움의 다양화,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사 미배치교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위(Wee) 센터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서 시작한 위(Wee) 클래스와 위(Wee) 센터

는 위기 학생 예방 및 자해·자살 사안 발생교 지원부터 시작해 학업중단 예방, 나아가 학교 위(Wee) 클래스에 대한 전문성 역량 강화 지원까지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위기학생 예방 및 지원	1) 심리치료비 지원 2) 종합심리평가 및 해석상담 3) 정서행동검사 2차 연계를 위한 심층평가 4) 위기사안 발생교 지원 5) 위기학생 예방 프로그램 6) 집단상담 7) 유관기관 협의회
학업중단 예방	1)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2) 학업중단 숙려제, 예방지원단 및 지역 협의체 3) 학교 내 대안교실
단위학교 및 위(Wee) 클래스 지원	1) 학생상담자원봉사제 2) 순회상담 3) 전문상담(교)사 연수 및 수퍼비전 4) 특별교육 프로그램 5) 위클래스 자체점검 및 컨설팅

이로 인해, 고양 위(Wee) 센터는 그동안 해왔던 위(Wee) 센터 역할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구조적 개편을 통한 단위학교 지원, 위(Wee) 센터 전문역량 강화 등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1. 위(Wee) 센터 인력 충원을 통한 구조적 개편	- 전문상담사 배치 - 행정실무사 배치
2. 역량강화 연수 강화	- 담임교사/학부모 마음건강증진학교 담당자 연수
3. 지역사회 연계기관 협의체 구축	- 연계기관 협의회 -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 유관기관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1. 상담업무와 행정업무 과중이었던 위(Wee) 센터 소속 전문상담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전문상담사와 행정실무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전문상담사는 과도하게 많은 상담량을 덜기 위해 주로 내방상담을 맡았고, 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는 행정실무사가 담당하여, 결과적으로 전문상담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 기존에 전문상담교사와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는데, 대상을 확대하여 학부모/담임교사/마음건강증진학교 담당자까지 포괄해 연수를 진행하니,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반응이 좋았습니다. 효과적인 상담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담임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지역 사회 내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위(Wee) 센터에서 지역 사회 연계기관 협의회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통합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느 기관에 방문하면 좋을지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위(Wee) 센터에서 근무하며, 학교 위(Wee) 클래스나 위(Wee)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 모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마음 쓰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Wee) 클래스 및 위(Wee) 센터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지만, 위(Wee)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행정업무와 상담업무까지 담당하시느라 심리적으로 소진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단위학교 위(Wee) 클래스가 1차 기관으로서 위기 예방에 전념하고, 위(Wee) 센터가 2차 기관으로서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더욱 발전할 고양 위(Wee) 센터와 위(Wee) 클래스가 기대됩니다. 위(Wee) 클래스 선생님들, 항상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 이슈브리프

## 온·오프라인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본 대한민국 위기 청소년지원 사업: 대한민국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책임지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정책사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본부장 노성덕



### 인구절벽에도 증가하는 청소년 위기, 그에 대응하는 청소년안전망

해마다 3월 초가 되면 초등학교 입학식 풍경이 뉴스에 오르곤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입학 소식이 뉴스를 장식했다.

그런데 풍경이 달라졌다. 신입생들이 일렬로 줄지어 등교하거나 입학식 하는 사진이 아니라, 단출하게 혼자서 있는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다. 이른바 1인 입학식이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 풍경뿐만이 아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인구절벽이 코앞에 닥쳐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극적이랄 만큼 인구는 감소하는데, 해마다 위기청소년 비율은 높아지지만 한다. 여성가족부 분석에 의하면 취약한 환경으로 인한 위기청소년(학업중단, 가정밖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우울과 불안 등 마음건강 이슈로 정신과 진료나 청소년 상담을 신청하는 청소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에서도 해마다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청소년 자살시도율은 전체 청소년의 2.8%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매년 링크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청소년 상담복지 영역은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 전국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 안전망을 온·오프라인으로 구축해 온 것이다.

### 오프라인 상으로 구축된 청소년안전망과 성과

오프라인 상으로 청소년안전망이 가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위기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배치하였다. 전국 17개 시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광역자치단체 내 청소년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전문가들이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2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였고, 이 가운데 30개 이

상의 시 센터에서는 분소까지 설치하여 위기청소년이 근거리에서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촘촘한 망을 구성하였다.

위기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였다.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7개 시도와 205개 기초자치단체별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를 나오는 청소년이 자기 지역에서 학업과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를 그만둠으로 인해 극심한 좌절과 분노감으로 이탈과 비행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진단하여 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는 가정의 구조적 결손, 빈곤문제,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가정 내 학대와 폭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가출을 감행하는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137개 지역에 청소년쉼터를 설치하여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가정복귀 및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쉼터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3개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 운영 중이고, 청소년비행 문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18개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특정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별로 특성화 상담개입 기법을 개발하여 프로그램화하고 있다. 2024년에 학교폭력을 교실에서부터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5,041개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였다. 또한 재난과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지원을 위해 긴급위기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자살 자해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역기능 극복을 돕는 인터넷 스마트폰 치유캠프를 운영 중이다. 그리고 정서행동장애청소년 지원을 위해 디딤센터를 설립하여 1개월 또는 4개월 지속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립은둔청소년 지원, 사이버도박 극복, 마약 중독 극복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오프라인 상에서 231,000여 명 이상의 위기청소년이 발굴되어 상담과 각종 지원을 받고 자살 극복, 위기 수준 감소, 탈 비행, 학업적 성공, 자립이행, 가정복귀와 적응 등의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오프라인 상의 지원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상으로 구축된 청소년안전망과 성과**

오프라인 상의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촘촘하게 하고자 하지만, 사각지대 청소년은 늘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들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해서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여 오프라인과 더불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어 있다. 청소년전화 1388은 전국 241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다.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전화상담은 상담 전문가들이 대응함으로써 전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조언을 들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력한다. 전화상담은 오프라인 상의 청소년안전망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긴급한 위기 또는 장기간의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센터로 의뢰된다. 2024년에 290,102건의 전화상담을 실시하였다.

사이버 상에서의 위기청소년 지원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는 채팅상담, 있는 채팅, 웹심리검사 상담, 사이버 아웃리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상담 중 자살이나 폭력 사건 등과 같은 긴급한 위기는 경찰과 공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오프라인 센터로 의뢰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24년 사이버상담센터에서는 405,08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이용자 만족도는 91.1점이었다.

이들 온·오프라인 상의 센터들과 사업들은 통합정보시스템인 '청소년안전망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배치된 후 성인기로 이행되기까지 서비스가 끊이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정보망이다. 이 정보망에서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부부처들이 링크되어 위기청소년 발굴과 의뢰, 문제 유형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의사, 변호사, 약사, 교사, 편지점, 찜질방, 상인연합회, 학원연합회 등 8,155개의 민간 기관 단체도 등록되어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의 의의와 전망**

저출산 인구절벽 시대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나름의 성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인기로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기청소년을 지원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국가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지원체계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작동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구축되어 위기청소년 지원에 효과를 발휘하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가고 있다. 향후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맞물려서 새로운 위기 문제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위기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더라도, 누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응과 촘촘하게 준비되어 있는 청소년안전망 안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안전망을 작동시키는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의 처우와 힐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안전망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내실 있는 청소년 정책사업으로 발전해갈 것이다.



이슈브리프

#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적용하고 검증할 것인가<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오인수 | 국립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현수 | 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양대학 교수 반지윤 |  
경일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수 이보람



### 들어가며

-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 및 조절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적절하게 다룰 줄 아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2024.8.)」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함.
- 사회정서교육의 효과적인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파악하고 적용방안을 제안하며, 효과성 검증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특징과 적용방안

-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범 적용한 초, 중, 고 학교급별 교사 총 13명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 7일과 10월 10일 양일간 약 90분 동안 초점집단면담을 진행하고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의 세 가지 특징과 다섯 가지 적용방법을 도출함.
- 프로그램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그림 1).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 장면에 상당적 개입을 적용하고 마음건강을 강조하며 선제적 접근을 취하며 자기인식을 강조할 뿐 아니라 공동체까지 고려하는 특징이 있음으로 확인됨. 또한 학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적용 과정에 교사의 사회정서 역량이 요구되고 학교 현장 적용을 고려한 체계를 바탕으로 타 교육 및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음이 강조됨. 나아가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뿐 아니라 교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됨.

[그림 1]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적용	프로그램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 상담의 만남</li> <li>• 마음건강에 대한 강조</li> <li>• 예방에 초점을 둔 교육</li> <li>• 자기인식에 대한 고려</li> <li>• 나, 너 공동체 모두에 대한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활동 중심</li> <li>• 교사의 사회정서 역량이 필요한 교육</li> <li>• 현장적용을 고려한 체계</li> <li>• 다양한 연계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참여 기회 제공</li> <li>• 교사의 성장기회 제공</li> </ul>

- 면담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적용 방안을 도출한 결과, 교과교육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생활지도 연계, 자율적인 집중 운영, 기존 유사교육과 연계의 방법이 도출됨(그림 2). 특히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을 기존 유사교육과 연계할 때 각 교육의 핵심요소 간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그림 3).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인성교육의 추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고(김영래, 2017; 김윤경, 2018). 어울림 6대 역량은 학교폭력예방에 초점을 두어 사회정서역량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성윤숙, 2022). 나아가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타 교육과 달리 마음건강을 강조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서완석 외, 2024).

[그림 2]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적용방안

교과교육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li> <li>•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 간 융합</li> <li>• 여러 교과에서 반복 적용</li> <li>• 고교학점제 연계 운영</li> </ul>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자치활동 활용</li> <li>• 동아리 활동 활용</li> <li>• 진로 활동 활용</li> </ul>
생활지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짧은 시간 활동 반복</li> <li>• 교사의 반복 지도</li> <li>• 학급 운영에 활용</li> <li>• 습득할 수 있는 환경구성</li> </ul>

1. 이 글은 「오인수, 김현수, 반지윤, 이보람(2024). 사회정서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체계 마련 연구(미발간 내부자료)」를 요약한 것임.

자율적인 집중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주간</li> <li>• 학교 자율시간(초 3~6, 중학교)</li> <li>• 자유학기제(중학교)</li> <li>• 계기 교육</li> </ul>
기본 유사교육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존중교육</li> <li>• 인성교육</li> <li>• 학교폭력 예방교육</li> <li>• 민주시민교육</li> </ul>

[그림 3] 인성교육,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어울림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안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도구**

-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초등학교 고학년(3~6학년), 중·고등학생용 효과성 검증도구 개발을 위해 각 학교급별 예비문항 120개<sup>2)</sup>에 대한 전문가 30명의 델파이 조사(202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를 거쳐 각 45개 문항을 선정함. 최종 선정된 학교급별 45개 문항을 타당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367명, 초등학교 고학년 455명, 중·고등학교 440명의 응답을 수집하여 분석함.
-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효과성 검증 도구는 총 4개 영역, 6개 핵심역량, 15개 구인으로 구성됨(표 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인식역량은 감정인식 및 자아존중감, 자기관리역량은 감정조절, 행동조절, 스트레스 대처, 관계인식역량은 공감 및 다양성 수용도, 관계관리역량은 개인관계 기술, 의사소통 기술, 갈등해결, 공동체 가치의 인식 및 관리역량은 책임감, 협력, 문제해결, 마음건강영역은 마음건강 이해와 태도, 마음건강 관련 도움 요청의 요소로 구성되고 각 요소(구인) 별 3개 문항으로 총 45개 문항임.

<표 1>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의 효과성 검증 도구 구인별 문항 수

영역	핵심역량	요소(구인)	문항 수(개)
1. 자기	1-1. 자기인식	1-1-1. 감정인식	3
1. 자기	1-1. 자기인식	1-1-2. 자아존중감	3
1. 자기	1-2. 자기관리	1-2-1. 감정조절	3
1. 자기	1-2. 자기관리	1-2-2. 행동조절	3
1. 자기	1-2. 자기관리	1-2-3. 스트레스 대처	3
2. 관계	2-1. 관계인식	2-1-1. 공감	3
2. 관계	2-1. 관계인식	2-1-2. 다양성 수용도	3
2. 관계	2-2. 관계관리	2-2-1. 대인관계 기술	3
2. 관계	2-2. 관계관리	2-2-2. 의사소통 기술	3
2. 관계	2-2. 관계관리	2-2-3. 갈등해결	3
3. 공동체	3-1. 공동체 가치의 인식 및 관리	3-1-1. 책임감	3
3. 공동체	3-1. 공동체 가치의 인식 및 관리	3-1-2. 협력	3
3. 공동체	3-1. 공동체 가치의 인식 및 관리	3-1-3. 문제해결	3
4. 마음건강	4-1. 정신건강의 이해와 관리	4-1-1. 마음건강 이해와 태도	3
4. 마음건강	4-1. 정신건강의 이해와 관리	4-1-2. 마음건강 관련 도움 요청	3
합계			45

- 문항별 응답자료는 두 차례의 변환을 거쳐 구인점수를 산출하고 기준에 근거하여 해석함. 먼저 문항별 점수를 변환식에 따라 100점을 만점으로 변환하고, 다음으로 영역 및 핵심영역별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범위(0~25점 낮은 수준, 25~50점 보통 수준, 50~75점 높은 수준, 75~100점 매우 높은 수준)를 기준으로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음.
-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의 학교현장적용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이 도구를 활용한다면, 추후 프로그램 내용의 보완뿐 아니라 학교현장적용 방법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24).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김영래 (2017). 역량 중심 인성교육으로서의 사회정서학습(SEL). 교육의 이론과 실천, 22(2), 31-53.  
 김윤경 (2018). 사회정서학습을 적용한 학교인성교육 정책방향 연구.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53-78.  
 서완석, 권용실, 오인수, 원승희, 조소혜, 최지욱 (2024). 한국형 사회정서성장 지원 모델 마련 연구 (2024-TR-05). 충북: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성윤숙 (2022). 2022년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연구보고 21-R6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 예방교육지원센터.

2. 문헌조사를 통한 문항 원안 수집결과는 「오인수, 김현수, 반지윤, 이보람(2024). 사회정서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체계 마련 연구(미발간 내부자료)」 168~174p에서 확인할 수 있음.

소식

# 위(Wee), 알려드립니다!

## 울산교육청

- 위(Wee) 센터 역량 강화 연수
  - 일시: 2025. 3. 27. ~ 28.
  - 대상: 힐링, 강북, 강남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 경남교육청

- 위(Wee) 센터 실장 협의회 및 신규 상담교사 업무 안내(3월)
- 위(Wee) 프로젝트 컨설팅 계획 안내(3월)
- 위(Wee) 센터장 협의회(4월)
- 위(Wee) 클래스 신규 구축 및 노후 위(Wee) 클래스 개선 사업(4월)

## 제주교육청

- 2025 위(Wee) 클래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3~4월)
- 2025 교직원 상담역량강화 연수 운영(4월)
  - 일시: 2025. 4. 15.
  - 대상: 제주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역량체계 기반 학교 상담인력 연수
  - (상반기) 연수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 (하반기) (가칭) 학교상담 리더 연수 시행
- 학교 상담인력을 위한 온라인연수 콘텐츠
  - 중앙교육연수원 '학교상담자를 위한 학교상담의 실제'
    - ▶ 총 15차시 (~ 2025. 12. 21.)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라닝 공동활용 연수
    - ▶ 총 21개 과정 (~ 2025. 11. 14.)
    - ▶ 회원가입 후 수강(<https://wee.kohi.or.kr>)
-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사업
  - 시범사업 참여 교육청
    - ▶ 2024년(계속) 대구, 울산, 경기, 충남
    - ▶ 2025년(신규) 서울, 대전, 충북, 전북, 경북
  - 사·도교육청 위(Wee) 센터 컨설팅('24년 컨설팅 미실시 기관)
- 위(Wee) 프로젝트 현황 조사
  - 현황조사 시스템 개발 완료 후 교육(지원)청 입력지침 안내
-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및 시상식
  - 8월 세부시행계획 안내, 11월 시상식
- 위(Wee) 프로젝트 BI 개편

※ 클라우드 기반 위(Wee)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고도화 작업으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안정적인 홈페이지 개편 및 개설까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 Wee 프로젝트



마음 먼저 챙겨요

2025년 여름호

# Vol. 74



## 마리보는 위(Wee) 뉴스레터

### 📖 전문가 칼럼 · 02

우리나라의 학생 정신건강 관련 정책의 발전과 자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광영숙

### 📖 현장의 소리 · 04

언젠가는 슬기로울 상담교사 생활, 함께 가고 싶습니다

수원북중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김현진

세상에 혼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 관계 증진, 소통 기회 만들기

대곡고등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남미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해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한국 학생 정신건강 정책 및 자원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센터장 임우영

### 📖 이슈브리프 · 15

위기의 교실을 넘어

: 학생마음건강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류정희

## 위(Wee), 알려드립니다



### 📖 위(Wee) 뉴스레터 원고 모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에서는 위(Wee) 프로젝트의 정책, 운영 현황, 성과, 우수사례, 행사 안내 등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위(Wee)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수록될 원고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 | 위(Wee) 프로젝트 관련 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 **제출방법** | louis94805@nypi.re.kr로 제출 **문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김해인



교육부 17계 사·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발행인 백일현 편집인 김영지 편집담당 김해인 주예찬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  
전화 044-415-2157 이메일 louis9480@nypi.re.kr

🌀 전문가 칼럼

# 우리나라의 학생 정신건강 관련 정책의 발전과 자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소아정신과 전문의) 곽영숙



국내에서 시행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여러 역학 조사를 보면 대략 8~10%의 아동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건강에 취약한 학생의 비율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WHO에 의하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아동의 77%가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도 개입이 필요한 아동의 20%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에서 학교 기반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정신건강증진과 예방사업을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세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중심의 선별 및 개입,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생 정신건강 관련 정책이나 자원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교 기반 정신건강 중재의 배경과 역사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1998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되면서 아동·청소년이 우선순위 대상의 하나가 되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주요 사업으로 시도되었다. 이 사업은 학교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이 학교정신건강사업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1981년에 서울시교육청 학교건강관리소 부속의원(현 학교보건진흥원)에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되며 두 분의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학교 보건실이나 상담실 등에서 수시로 의뢰되는 학생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진료와 상담을 한 바가 있다. 또한 1998년에서

2007년까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협약을 통해 서울시 11개 교육지청 산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전문의 상담 제도가 운영되며 교육계와 의료계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말부터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화되었으나 학생정신건강문제로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자살이 다시 한번 사회 문제화되면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2006년 1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학생 건강 검사에 '정신건강 상태조사' 항목이 신설되어 2007년에 전국 96개교 대상 학생정신건강 검진 시범사업의 근거가 되었고, 이후 정신건강 선별평가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2008년에는 위(Wee)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이 추진되며 학교 상담담당 구축이 시작되었다. 학교 상담 및 복지는 학생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후 정신의학과와의 협력 관계로 이어진다.

2012년에 교육부 위탁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개소하며 소아정신의학 분야의 지식과 임상 경험이 국내 학교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기여하게 된다.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부에서 설립·지원하는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지원, 국가 수준의 재단 및 학교위기 시 위기개입 지원 및 교직원 심리회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중앙지원단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학생정신건강지역협력 모델 구축·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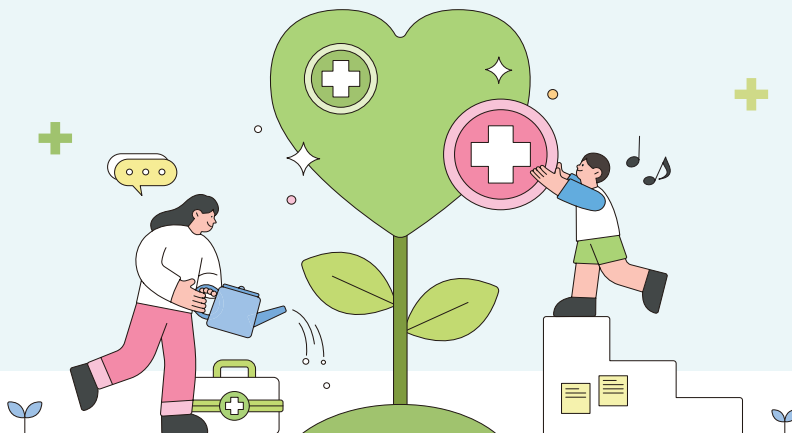
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1차 선별된 학생들에 대한 심층평가와 지역 병원 등과의 연계를 위한 협력이었다. 하지만 정신건강 위험성이 높은 학생이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선별되지 않고 부모가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관심군 학생의 심층평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개입과 지원을 하는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2017년부터는 자해·자살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7개 광역자치단체 거점센터가 수립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현재 7곳의 센터가 사업을 수행 중이며 점차 확대하여 서울시 전역을 담당하는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협력모델사업에서는 학교 마음건강 자문 의사를 두어 학생 및 학부모 상담, 교사가 지도하기에 어려운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사 자문이나 사례회의 개최, 학교별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자문, 교사교육, 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교육 등을 시행하였다. 2015년 제주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청에 스쿨닥터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역마다 학교, 교육청과 연계된 마음건강 주치의 제도가 생겨 학교자문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국내 학교 기반 정신건강 증진의 큰 축의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학교 위기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공주사대부고 해병대 캠프 사망 사건과 단원고의 세월호 재난 시의 위기개입을 포함해서 자살 학생 발생 시 학교 위기개입에 이르기까지 정신과 전문의들이 참여하면서 모든 학교에 위기개입 매뉴얼이 배포되었고 위기로 인한 학교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계 구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감염병 학교 위기개입 매뉴얼이 만들어져 배포되었고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학생, 교사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들이 마련되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2009년 이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되었고 다각적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 사망률은 증가하였다. 학생의 자살 위험을 학교 및 기존 상담시스템에서 조기 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018년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수립에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이 포함되었다.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친화적 SNS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청소년 모바일상담센터가 추진된 배경이며, 2018년 초 시범 운영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청소년 모바일상담센터는 24시간 자살위험 학생 문자 상담서비스와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관련 교육 이수 후 자살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기 상황으로 판단될 때는 119,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등 사회정서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2024년 1월, 교육부에 학생 마음건강 정책 부서 '사회정서성장지원과'가 신설되었다. 교육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중점과제에 마음건강을 넣고 최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2024년부터 보완·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교사의 학생 상담 및 마음건강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발견-치유-회복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여 학교 내 개별교사 대응에서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둘째, 매년 모든 학생에게 사회정서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교육 등 성장 촉진을 위한 보편적 교육, 상시 검사체계 및 의료기관 기반 선별검사로 전환 추진한다. 셋째, 정신건강전문가 지원을 확대하며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도입으로 학교에 상시 긴급 지원을 한다. 넷째, 학생 상담 체계를 보완하며 학교 위(Wee) 클래스의 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다섯째, 고위기 학생의 학교밖 위탁-치유-학교 복귀 지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학부모 교육 및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범부처 연계를 강화한다. 이 모든 정책이 잘 실현되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장의 소리** 위(Wee) 클래스

# 언젠가는 슬기로울 상담교사 생활, 함께 가고 싶습니다

수원북중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김현진



‘현장의 소리’ 문자 그대로 제가 상담교사로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 상담교사의 사명감과 정체성 혼란, 그리고 변화

중학생이던 시절에 교실에서 문득 ‘아, 청소년 시기를 겪는 건 이렇게 힘든데 왜 청소년기 마음을 보듬어주는 직업이 없지? 나는 나중에 청소년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어른이 되어야지’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그 결심이 이뤄진 날, 도심에서 떨어진 경기도 양평 소규모 중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꿈꿔왔던 일을 한다는 설렘도 잠시, 몰아치는 학생들의 위기 상황에 함께 허우적대며 정답 없는 문제에 맞서 같이 울고 달래며 고군분투하였습니다. 병원과 상담센터, 교통편조차 마땅치 않았던 지역이다 보니 자살·자해나 아동학대, 정신질환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며 두려움과 무기력감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보람으로 하루하루 채워갔지만 동시에 계속되는 소진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상담교사로서 중심을 두어야 하는 일과 학교에서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고 좀 더 큰 지역에서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배워보고자 부천 위(Wee) 센터에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Wee) 센터에서는 학교와는 다른 차원으로 복잡한 다중적 역할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위(Wee) 클래스가 없는 학교에 순회상담을 나가며 ‘상담자의 역할’,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행정자의 역할’, 학교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2차 기관의 역할’, 교육지원청 안에서의 ‘공무원의 역할’뿐 아니라 실장의 경우는 센터의 ‘책임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겠다는 저의 열망은 여러 역할을 잘 소화해야 한

다는 책임감과 버거움으로 덮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부에서 ‘2024년도 위(Wee) 프로젝트 기능강화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위(Wee) 센터 식구들과 용기를 내었습니다. 자살·자해를 포함한 다양한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상담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도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2025년에도 시범사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비록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쌓여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위(Wee) 클래스에서, 위(Wee) 센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모든 노력이 쌓여 위(Wee) 프로젝트가 점차 방향을 잡아 가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 학교 전체가 함께하는 통합지원의 길

위(Wee) 프로젝트 외에도 학생 위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수원북중학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3년 차 선도학교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막연한 부담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적응하고 몇 개월 지나다 보니 오히려 전보다 위기상황을 혼자 대응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든 것을 느낍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이 위기 학생에 대해 이해나 대처에 익숙하시고, 외부 연계 지원 및 대안적 프로그램 등의 활동에도 적극적이셨습니다.

위기관리위원회와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학생맞춤통합지원 팀에 포함시켜 종합적인 위기 사례가 있을 때 학생맞춤통합지원팀에서 함께 고민하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닌 팀 구조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든든함과 함께 심리적 피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울 소재의 모 중학교에 교생실습과 교육봉사를 나갔던 우연이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교육활동 운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위기 학생 돌봄에 많은 관심을 쏟는 학교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정례적인 사례회의로 위기 예방·발견·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 위기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실습생인 제가 보기에는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가르침을 주셨던 존경하는 저의 멘토 선생님은 현재 학생맞춤통합지원 강의를 전국으로 하시면서 그때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학교를 바꿀 수 있다”

### 학교 상담의 방향

이렇듯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학교 상담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할지 그 어느 때보다도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상담의 역할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위기가 점점 다양해지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상담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경계 없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상황과 위기가 모두 달라서 학교 상담교사의 역할도 다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학교상담의 명확한 역할이 무엇인지 정의되면 좋겠습니다.

위클래스 선생님은 위기 징후를 발견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며, “너 그러면 안돼”라는 일반적인 염려가 아닌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Newsletter

상담 선생님들의 업무 영역이 좀 더 명료화되면서 관련된 연수 및 수련 체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상담 선생님들은 각자의 재량으로 연수 및 수퍼비전을 신청하여 지원받거나 사비를 들여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험과 숙련도 또한 상담 전문성에 중요한 요소인데 학교에는 초임 선생님부터 베테랑 선생님까지 다양하게 계십니다. 상담 역량을 넘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향, 기타 맡은 업무에 대한 숙련도까지 하면 개개인의 상담선생님이 가진 학교상담 직무역량은 같은 모양 하나 없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현재 학교상담은 법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한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막연한 업무 경계의 한계점, 자살·자해와 같은 위기 사안이 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상담 선생님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교사 개인의 역량과 숙련도를 넘어 학교상담의 역할과 역량강화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교상담의 고유한 전문성이 보다 안정적으로 발휘되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지치고 흔들려도 우리가 계속 서 있는 이유

“요즘 하루에 삶에 대한 이야기보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동료 상담교사가 했던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서 행동특성검사 관심군을 선별하고 상담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화창한 봄을 누릴 새도 없이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다 한 학기가 끝납니다. 휘몰아치는 절망과 슬픔을 대하다 보면 어느새 저 자신도 그 늪에 잠겨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작년에 저는 심장이 빨리 뛰고 왠지 목이 답답해오고 눈물이 나는 낮은 증상을 경험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말하던 공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버텨내야 된다, 잘 해내야 된다’ 하는 책임감을 가장한 압박감이 저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아마 처음부터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죽음과 절망이 무서운 보통 사람이었기에, 위기에 처한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 해매고 자책하는 무기력한 시간이 누적된 것이지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이러한 상태에 이미 들어서니 혼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도움과 지지를 받았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함께 대응하는 체계에 적응을 좀 했는지 이제는 ‘나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비 온 뒤 굳는 땅처럼 전과 다르게 ‘있는 그대로 지금의 내가 충분하다’는 말도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이 상처를 보여줄 때마다, 자신이나 타인을 죽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 앉고 상담하고 나면 제 몸도 힘이 쭉 빠져 잠시동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분석과 수퍼비전, 특히 임용 동기들과 주기적으로 자조 모임과 동료 수퍼비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저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그 어느 사이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응원하며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는 회복 중이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상담실에서 겨우 꺼내 보이고 미소 짓는 새싹 같은 아이들과 함께, 함께하는 따뜻한 동료들과 함께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픈 마음을 품고 견뎌낸 모든 상담선생님들께 진심을 담아 전합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의 소리

위(Wee) 클래스

# 세상에 혼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 관계 증진, 소통 기회 만들기

대곡고등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남미진

Newsletter



얼마 전에 본 영화 속 주인공은 본인들을 루저, 하자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처 준 세상을 떠나 자신만의 공간에 혼자 있으려 하였습니다. 이를 보며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과 무척 닮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 ‘학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위클래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나는 혼자야. 여기에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할 일이 없어.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가 담겨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학교에서 대인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갈등을 대처하는 것이 더욱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또래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 혼자인 학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 기존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을 상황에 맞춰 수정하며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보았습니다.

## 자조 집단 형성, 집단 프로그램 운영

위클래스는 점심시간이면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놀거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말할 곳이 필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예수업을 하기도 하고 교우관계, 학업중단 등 비슷한 고민을 지닌 학생들의 대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없을 때도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어 서로의 고민에 대해 공감과 위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툴기에 중재하여 숨은 의도를 알려주고 행동수정이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자해, 자살 충동이 있는 경우 집단이 되면 비합리적 사고가 더 심해질 수도 있기에 대화에 자주 개입하고 때로는 집단



프로그램을 활용해 충동을 조절하고 서로 나아질 수 있도록 응원하였습니다. 또 학업중단위기 학생을 미리 발굴하여 집단으로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 사제동행 체험 프로그램

또래와 교류는 불편하지만, 교사와 교류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의 관심을 바라듯 선생님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만 학업적 성취가 없으면 관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학교의 많은 선생님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도 함께하며 다양한 교류를 만듦으로 하였습니다.

캠프활동으로 선생님들과 집단 프로그램, 삼겹살 구이, 물총 놀이를 진행하니 외향적인 학생들은 즐겁으나 내향적인 학생은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하되 일반인의 시선으로 설명해 주는 도슨트가 있었으면 하였습니다. 미술 교사의 도움으로 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일 또래도슨트가 되었습니다. 도슨트를 맡은 학생은 설명하기 위해 공부하고 소통



하는 법을 연습하는 기회가 되고 듣는 학생들에게도 작품을 더 자세히 관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사과데이 / 수능 응원 메시지 캠페인

사과데이는 많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로 친구, 선생님께 편지와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매년 진행하다 보니 본인에게, 자신의 작년 학반, 번호 후배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감사 편지를 학생, 동료 교사에게 쓰며 소통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불안이 높은 학생들이 많아지기에 모두가 응원을 남기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 불안을 낮추는 호흡법 등을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는 잘하라는 말 대신 지금까지 고생했다는 격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누구나 적을 수 있고 모두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사, 후배만의 응원과 달리 친구 간 응원, 스스로 다짐도 가능했습니다.

### 멘토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청소년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크게 내색하지 않을 뿐 모두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할지 걱정하고 있다는 것과 이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청소년 전문가와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위클래스 출입이 어색한 학생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기에 위기 사전예방 효과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모두가 비슷하였다는 사실에 불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게 도움이 될까?' 계속 고민하였습니다. 학교에는 상담교사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있고 많은 상호작용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상담으로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기 어렵고 집단 상담은 모집과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소규모 집단 활동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다양한 소통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프로그램 결과, 죽고자 하던 학생이 미래를 계획했고 학업을 중단하려던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는 또래와 사소한 소통 기회, 예상치 못한 어른들의 도움들이 모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시도하며 더 많은 관계를 경험, 소통의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동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상담교사는 학교에 혼자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성의 한계와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학교 교사들 및 타교 전문상담교사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든 활동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들의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현장의 소리 | 병원형 위(Wee)센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해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Newsletter

2025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최초의 병원형 해봄 위(Wee)센터가 개소했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함’과 ‘다시 해보자’는 “해봄”의 의미처럼 청소년들이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 지치고 무기력했던 순간 속에서도 또다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함께 걷고자 합니다. 센터가 개소하기까지 1년간 대장정의 발자국을 공유합니다.

### 병원형 위(Wee)센터란?

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치료·교육 등의 맞춤형 One-Stop 통합 지원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 사회 연계 치료 중심 민간위탁 기관

### 추진배경

- 마음건강의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위험 학생들에게는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하지만 제주도 내에는 학생들이 입원 가능한 병원이 부족하고, 치료 과정에서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업중단이 발생하여 유급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 정서위기 학생은 증가하고 학업중단 학생이 줄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정신건강 지원 체계인 학교-교육청-병원 연계 학생 심리·정서 시스템 구축 필요하였음.



하늘 정원 (6층)



교실 (1층)



**센터가 하는 일**

**개인 개인**

- 기본 건강 검진
- 심리검사, 위기 스크리닝 검사
- 정신과전문의 면담
- 약물치료 및 교육
- 개별 심층 심리치료
- 가족상담
- 치료 및 복고 과정 계획 논의

**부모상담 및 교육**

- 가족상담
- 보호자 상담
- 부모교육
- 지역사회 이용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교과 및 치료프로그램**

- 보통교과
  - 국어, 수학, 영어
  - 사회, 한국어
- 대안교과(정서.심리치료)
  - 정서관리 / 인간관계훈련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심리극 / 집단상담 등

**복고 및 사후관리**

- 복고 준비
  - 센터방문의 날 실시
  - 담임교사 상담 및 협조
  - 복고 준비 상담 및 진행
  - 위탁 종결 관련 논의
- 복고 후 사후관리
  - 외래진료 / 개별면담
  - 부모상담 등

**체험활동**

- 진로교육 / 동아리활동
- 자치회의 / 봉사활동
- 안전교육 등

**유관기관 협력**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력
- 위탁학생 재적학교 및 제주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와의 협력
- 지역사회 협력기관 담당자 교육 및 협력

**운영 개요**

센터명	개소연월	위탁기간	정원	운영형태	인력
해봄Wee센터	2025.5.1.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가능)	20명	입원치유형 (중·고통합)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7명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부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실장,정신건강사회복지사, 행정(상근인력 4명)

**시설현황**

구분	주요시설
1층 Wee센터	교실, 상담실, 휴게실, 교무실, 화장실 등
3층 진료실	진료실, 심리검사실, 임상검사실 등
5층, 6층 입원실	입원실, 상담실, 야외 휴게실 등
지하, 별관	프로그램실, 제빵·바리스타실습실 등

**센터 이용절차**

위탁 문의 및 신청서 제출	초기상담 및 평가	사례회의	위탁교육	종결 및 사후 모니터링
학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Wee센터	[해봄 Wee센터] 초기상담, 심리평가, 전문의 면담 등	[해봄 Wee센터] 위탁 가능 여부 결정 수탁결정 결과 알림	[해봄 Wee센터] 상담, 치료, 교육프로그램 운영	• 병원형Wee센터 ▶ 학교로 수탁 종결 통지서 발송 • 사후 모니터링 실시

•위탁학생의 출결은 위탁교육기관 에서 관리 후 재적학교로 통보  
•위탁학생의 학적, 평가는 재적 학교에서 관리

### 센터 설립 추진 노력 및 전략

-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병원형 위(Wee)센터를 구축하고자 노력함. 또한 타시도 우수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병원형 위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
- 병원형 위(Wee)센터가 안정적인 인력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정신과 병원을 출입한다는 사회의 편견으로 치료가 시급한 학생이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하여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기관과 교육기관으로서 공간 구성(상담실, 교육실, 활동실, 휴게실 등)이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 입원실, 휴게실, 프로그램실(바리스타 실습실), 야외 공간(하늘정원) 등 세밀하게 공간 구성함.
- 병원형 위(Wee)센터 명칭 공모를 통해 일상에서 친숙하고 선입견이 없이 학생 마음건강이 치유할 수 곳이 될 수 있도록 함
- 인식 개선 홍보 활동 : 설명회 개최, 함께하는 제주교육, 언론홍보, SNS 활용 홍보, 옥외 전광판, 버스정류소, 방송국 생방송 대담 출연 등 적극적 홍보 활용
- 지역사회 연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 :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협의체 운영,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등



휴식공간(1층)



입원실(5,6층)



상담실(1층)



위·수탁협약체결 협약식



### 병원형 해봄 위(Wee)센터 설립 추진경과

\* 병원형 위(Wee)센터 개소에 관심있는 지역에 참고가 되도록 세부 경과를 제시합니다

- 타시도 운영 벤치마킹 기관 방문 (2024. 5. ~ 7.)
  - ※ 준비기간 동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방문
-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실시 (2024. 6.)
  - ※ 타 시도교육청 운영 사항 조사, 초기 구축비 사전 조사 (교육시설과 협조)
- 사업 추진계획(안) 수립 (2024. 7.)
- 병원형 위(Wee)센터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4. 8.)
  - ※ 만족도 조사 결과 정서위기학생 지원 방안 '병원형 Wee센터 추진' 91.55% 필요
- 병원형 위(Wee)센터 추진(안)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도의회 등의-심의(2024. 8. ~ 9.)
- 사업비 예산편성, 예산안 심의 및 확정 (2024. 9. ~ 12.)
- 병원형 위(Wee)센터 인식 제고 홍보 등(2024. 12. ~ 2025. 5.)
  - ※ 옥외 전광판, 버스정류장 안내기,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 등
- 수탁기관 공모, 선정심사, 선정기관 공개, 위·수탁기관 협약 체결 (2024. 12. ~ 2025. 1.)
  - ※ 위탁기간(1차년도) : 2025. 2. 1. ~ 2026. 1. 31. (성과 평가에 따라 연장)
- 병원형 위(Wee)센터 명칭 공모, "해봄Wee센터" 선정 (2025. 2. ~ 3.)
- 병원형 위(Wee)센터 기반 구축(리모델링, 센터 인력 채용 등) (2025. 2. ~ 4.)
-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자문 협의체 구성-운영 (2025. 3.)
  - ※ 학교 교감 및 업무담당교사, 도교육(지원)청 유관부서 담당자, 해봄 위센터 관계자 등
-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설명회 개최 (2025. 4.)
- 병원형 위(Wee)센터 개소 (2025. 5. 1. ~)
  - ※ 개소식 '25. 6. 9.(월)



현장의 소리

# 한국 학생 정신건강 정책 및 자원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우영



### 배경 및 문제 제기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학업 중단, 자해, 자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울·불안 증상 경험률은 코로나19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상담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 중심의 상담체계(위(Wee)프로젝트 등)를 구축해 왔으나, 여전히 자원의 부족과 체계적 연계 미비, 일부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

### 학생 정신건강 현황

항목	수치 및 내용 (2023년 기준)	출처
자살 학생 수	306명(10~19세 기준)	통계청(2023)
우울감 경험률	중학생 23.5%, 고등학생 27.6%	교육부(2024)
자해 시도 경험률	전체 학생 중 6.1%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2023)
상담교사 1인당 학생 수	전국 평균 695명	교육통계서비스 (2024)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전체의 약 8%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2023)

### 현행 학생정신건강 정책 및 자원

- ▶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 신설 및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실시 (2024년)  
: 학교에서 보편적 마음건강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 및 마음건강에 대한 1차 예방에 중점
- ▶ 고위험군 식별을 위한 학교 기반의 선별검사

- 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한국에서 학교 정신건강 선별을 목적으로 개발된 국가 표준 검사 도구
  -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 조기 발견
  - 정신건강 고위험군 선별 및 전문 기관 연계
  - 담임교사 및 학부모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 제공
- ② 마음이지(EASY)검사: 학생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 평가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개발된 온라인 심리검사 플랫폼. 교육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1차)에서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심층평가 도구로 사용되거나 또는 마음 건강에 대해 수시로 평가 및 선별을 하기 위해 사용됨. 위험군은 Wee센터 및 외부 의료기관으로 연계



### 위(Wee) 프로젝트

위(Wee)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생지원 통합 서비스 체계입니다. 이름인 "위(Wee)"는 We(우리) + Education(교육) + Emotion(감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정서·행동 문제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예방
  -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치료·교육 연계
  - 학교·지역사회·전문기관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 ① 위(Wee) 클래스(학교 내):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하여 기초상담 제공
  - ② 위(Wee) 센터(교육지원청): 심층상담 및 외부기관 연계 역할
- 가정형 위(Wee)센터: 단기 보호와 심리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생활 중심형 위기개입 시설

- 병원형 위(Wee)센터: 의료기관과 연계된 정신건강 치료 중심 위센터
- ③ 위(Wee) 스쿨 (위탁형 대안학교): 고위기 학생의 대안 교육 제공

### 위(Wee)닥터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 정신건강 전문 자문 서비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온라인 기반으로 학교 현장에 자문을 제공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과 적절한 연계를 돕는 제도입니다. 정신건강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자문과 판단 근거를 제공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다들어줄게) 24시간 모바일 상담

청소년을 위한 24시간 모바일 기반 실시간 상담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위기 청소년이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 “다들어줄게” 추가 이후, 채팅 상담을 시작할 수 있으며 전문상담사가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하기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최적화된 정신건강 접근 수단입니다. 심야시간,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즉시 상담 가능하며, 필요시 위기개입팀의 출동도 가능합니다.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평가·상담·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학교 내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조기 개입 및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미연계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었으나 치료 중단 위기 학생, 의료 취약지역의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거점센터 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에서 의뢰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 보호자, 교사 대상 심층평가 진행 후, 사례회의를 통해 학생별 개입전략 수립, 전문기관 연계 및 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 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

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정신건강 고위험 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치료 지원
-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심리·정신으로 접근성 향상

###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원사업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며,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디딤센터<sup>1)</su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꿈드림센터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자립·상담·직업훈련 등 종합 지원
- ② 디딤센터 : 정서·행동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치료·보호·교육 등 종합적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 시설

### 결론

한국 사회는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심화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도의 정책과 자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마음이지(EASY)검사 등의 체계적 선별 및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위닥터, 청소년모바일상담(다들어줄게) 등은 다양한 접근 경로를 통해 위기학생 개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제도권 외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시범사업과 꿈드림센터, 디딤센터 등을 통해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 전문 인력의 충분한 확보, △ 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 강화, △ 학교 현장의 실행력 확보, △ 청소년과 보호자의 인식 개선 및 접근성 향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은 단순한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과 조기 개입, 통합적 지원이 핵심이므로, 앞으로도 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지속적 투자를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학생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문헌

- 교육부 (2023).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4). 청소년 정신건강 시범사업 보고서.  
 통계청 (2023). 청소년 자살 통계.  
 한국교육개발원 (2024). 교육통계서비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참고자료**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사업 흐름도**

**학생 지원 절차**



**학교 컨설팅**



출처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환경보호원(2024).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우수사례집.

**2025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학교지원센터**

25.6.24.기준

시도	학교지원센터명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서부교육지원청Wee센터
부산	남부교육지원청Wee센터
	북부교육지원청Wee센터
	동래교육지원청Wee센터
	해운대교육지원청 Wee센터
대구	경북대병원Wee센터
	영남Wee센터
	동산Wee센터
	대구가톨릭Wee센터
인천	동부교육지원청Wee센터
	인천참사랑병원
	황원준정신건강의학과
	인천바오로병원
광주	새희망병원
	광주서부 마음건강증진센터
	광주동부 마음건강증진센터
	광주광산 마음건강증진센터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우리아이마음건강지원센터
울산	강북Wee센터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경기	의정부 한서중앙병원
	용인 이음병원

시도	학교지원센터명
경기	컴포트정신건강의학과의원(파주금촌)
	미사중앙정신건강의학과의원
	안산연세병원
	서울이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알로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컴포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파주운정)
	연세불정신건강의학과의원
강원	행복주는의원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Wee센터
충북	강릉올곡병원Wee센터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충남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팀
	천안중앙병원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전북	백제종합병원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혜강병원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전남	원광대학교병원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전북대학교병원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경북	전남동부거점센터(조선대)
	전남중부거점센터(남부대)
경남	전남서부거점센터(목포대)
	생명사랑 남서부센터
제주	생명사랑 동북부센터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
	학생마음건강센터

출처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mhrc.kr>

## 이슈브리프

# 위기의 교실을 넘어

## : 학생마음건강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축<sup>1)</sup>

Newslett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류정희



### 심리정서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통합적 대응의 필요성

최근 몇 년간 학생 자살률의 증가, 자해 및 불안장애와 같은 심화되는 정신건강 문제는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큰 우려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한민국은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질병관리청(2024)에 따르면, 2023년 청소년 자살 시도율은 3.4%에 이르렀고, 우울감 경험률은 무려 28.3%에 달한다. 학생들의 외로움 경험률도 2020년 15.8%에서 2023년 23.7%로 증가해, 마음건강 위기의 심화가 뚜렷하다. ADHD, PTSD, 자해 및 충동조절장애 등 정서행동 장애를 겪는 학생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개별 상담의 확대를 넘어, 보다 구조화되고 통합적인 마음건강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기존의 위(Wee) 프로젝트는 위기학생 상담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이제는 보편적 예방부터 위기 개입, 그리고 회복지원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마음건강 지원체계로의 확장이 요구된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마음건강 시스템을 통해, 위기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인 심리정서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편성과 맞춤형성을 아우르는 다층적 학생지원 전략

학생 마음건강 지원은 단순히 위기 개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날 학교는 모든 학생이 다양한 정도의 스트레스, 불안, 사회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예방-조기발견-집중개입-회복지원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 수준별 지원 전략이 정교하

게 설계되어야 한다.

위(Wee) 클래스는 일상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 저위기 학생을 위한 심리교육과 정기상담을 제공하고, 중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집중상담 및 모니터링 체계가 가동될 필요가 있다. 자살 충동이나 자해 시도 등 고위험군 학생은 병원형 Wee 센터 또는 정신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즉각적인 의료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위기 수준의 학생들이 차별 없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Wee 클래스는 학교의 마음건강 '컨트롤타워'로서 팀 접근 중심의 사례관리와 외부기관 연계를 주도해야 한다. 특히,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위원회를 통해 교사, 상담교사, 학교복지사, 정신건강전문가가 함께 개입하여, 학생의 마음건강 등 복합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입방안을 조정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법·인프라 정비

통합적인 학생 마음건강지원체계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인프라의 확충 등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는 위(Wee) 프로젝트의 근거가 제한적이며,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및 「학생 마음건강지원법」의 제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는 위(Wee) 프로젝트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틀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부모 동의 없이도 고위험 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자해·자살 충동 학생에 대한 응급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교사 및 전문가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

1. 이 글은 2024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탁연구로 추진된 「학생마음건강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요약한 것임.

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모든 학교에 위(Wee) 클래스를 설치하고, 위(Wee) 센터의 인력을 보강하며, 병원형 위(Wee)센터와 같은 대안 기관을 확충하는 인프라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직도 전국 위(Wee) 클래스 설치율은 여전히 지역적 편차가 크며, 상담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권장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많다. 병원형 위(Wee)센터도 2024년 기준 17개소로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인데, 농어촌, 낙후 지역 등 정신건강 자원이 부족한 곳에는 우선적인 자원 배치와 지역특화 모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마음건강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 제고를 위한 필수 인프라다. 정서·행동특성검사, 상담이력, 사례관리 결과 등을 통합관리하여 학생의 마음건강 위기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기록관리 표준화 등 안전한 정보공유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와 협력 기반 조성

상담인력의 부족과 역량의 격차는 학생마음건강 지원체계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담 인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전문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상담교사들이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실무에 투입되고 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위기대응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담교사 양성과정에 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사례 기반 학습, 모의상담, 현장형 실습 등을 도입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신규 상담교사에 대한 멘토링 체계와 집단 수퍼비전도 정례화되어야 하며, 우수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및 전문성 강화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인력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협력 기반도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은 학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보건소 간 연계를 주도하고, 심리정서·의료·복지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학교 안팎에서 즉각적이고 일관된 개입이 가능해진다.

### 조기 발견과 마음건강 리터러시 확산을 통한 예방 중심 접근

심리정서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사 중심의 조기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마음이지(EASY)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위기징후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연수와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교사 및 외부전문가에게 즉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심리적 지원에 대한 학생과 부모의 인식을 개선하는 '마음건강 리터러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은 예방적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초등학교 고등까지 정기적으로 정서 교육, 감정표현 훈련, 스트레스 해소법을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 학부모 대상 리터러시 교육도 병행하여 조기개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심층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자해·자살 시도 이후의 학교 복귀 지원 프로그램, 병원형 위(Wee)센터 및 지역정신건강센터와의 집중 연계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위기 이후의 회복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지원체계, 지금이 전환의 시작점

학교는 단지 학습의 공간이 아닌, 학생의 정서와 삶을 지탱하는 주요 거점이다.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Wee) 프로젝트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위기수준별 마음건강 대응체계를 구조화하고, 마음건강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인력의 양적 확충과 전문성 강화,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 마음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교사나 상담(교)사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는 공공정책의 핵심 영역이다. 예방에서 회복까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단지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제 학교는 단순한 교육공간을 넘어, 마음건강을 지키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 참고문헌

교육부, 질병관리청 (2024).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소식

# 위(Wee), 알려드립니다!

Newsletter

## 2025년 역량체계 기반 학교상담 리더 연수를 시작합니다

### • 학교상담 리더 양성

- (목표)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역량체계에 기반한 학교상담 역량 강화를 이끌어갈 선도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상담 리더 양성
- (선발) 교육경력, 소지자격, 업무·동료코칭 경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선정 및 추천
- (역량) ①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학교상담을 선도하며, ②지역에 맞는 지원모형을 구축하고, ③동료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를 컨설팅·수퍼비전 및 ④교육청 연수강사로 활동
- (인증) 학교상담 리더 연수 이수 시, '학교상담 리더' 위촉장 부여

### • 연수체계 운영방안

- (연수내용)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의 역량체계를 바탕으로 ①상담, ②교육, ③연계협력, ④행정관리, ⑤전문성 개발 등 5개 영역을 고루 포함하여 구성

### <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의 역량체계(Competency Framework)(안) >

역량군	상담(4)	교육(4)	연계·협력(2)	행정·관리(2)	전문성 개발(3)
직무 역량	①개인상담 ②집단상담 ③심리검사·평가 ④위기상담	①학부모 상담 ②교직원 자문 ③학생 예방교육 ④프로그램 개발·운영	①학생·학부모·교사 연계·협력 ②지역기관 연계·협력	①학교상담 기획 ②학교상담 운영·관리	①학교상담 수퍼비전 ②자기개발 ③정책이해·실천

역량 수준별 연수 방법	역량수준		→	수준별 연수 방법	
	[이해]	기본 상담 기술 습득, 기초적 사례 분석		→	원격 콘텐츠 및 비대면 실시간 연수
	[활용]	다양한 상담기법 적용 능력 향상,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 개발 등		→	실습 중심 연수(대면/비대면 실시간)
	[발전·응용]	고차원적 상담문제 해결, 윤리적 판단능력 향상 등	→	수퍼비전 등 교사 간 네트워크	

- (연수강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역량체계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진과 학계·현장 전문가 등을 강사로 적극 활용하여 연수 운영
- (연수방식) 학교상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워크숍 및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과정을 병행하여 실시

### < '25년 연수 프로그램 구성(안) >

구분	온라인 콘텐츠 연수	과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연수	집합 연수
일정	7-10월	7-11월	(1기)10월 27-28일, (2기)10월 30-31일 (2일, 110명씩 2회)	(1기)11월 27일-29일 (2기)12월 04-06일 (2박3일, 110명씩 2회)
교육 내용	학교상담 역량 (중앙교육연수원, 2개 과정)	실습을 위한 과제 수행 (사례보고서(2), 경험보고서(1) 작성)	개인·위기상담, 상담윤리 및 정책 등	개인·집단상담, 수퍼비전 등
운영 방식	실시간 연수 전까지 이수 권장	실시간/집합 연수 전 제출	이론, 실습 및 토론을 혼합·구성	상담실습 및 수퍼비전 실습 등
연수 시간	총 20차시	총 40차시(과제 8, 실시간 12, 집합 20) * 집합 20에는 사전 오리엔테이션(1차시, 7월 18일), 입소식(0.5차시), 수료식(0.5차시) 포함		

▶ 주관 및 주최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14회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 당신이 희망입니다

2025년 제14회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함께 공유하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여 성장한 학생들과 학생들 곁에서 힘이 되어 준 관계자들을 격려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성장 동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 **시상 계획: 2개 부문**

**학생 및 상담업무담당자(2인1조 팀 지원)**

학생: 위(Wee)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상담, 연계 등을 통해 학교폭력, 학업중단,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건강한 학교·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의 사례

상담업무담당자: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발전에 공헌한 상담업무담당자의 사례

**기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거둬오셔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기여한 사례

♡ **시상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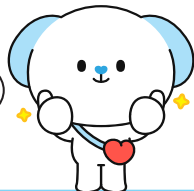
부문	훈격	
학생 및 상담업무담당자 (2인1조 팀 지원)	교육부장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기관	교육부장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대상 최우수상

※ 부분별 시상 및 상금 수여(단, 기관 부문은 상금 대신 현판 수여) ※ 시상 내역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상식**

- 일자 : 2025년 11월 21일(금) 예정
- 장소 : 추후 안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공모 기간: 2025년 8월 18일(월) ~ 10월 10일(금) (안)
- 접수 방법: 제출 양식에 맞추어 해당 시·도 교육청으로 접수
- ※ 세부 공모 요강은 8월경 공문 및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참고

♡ **문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  
044-415-2190, 044-415-2157 / wee2024@nypi.re.kr



교육부 |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위 Wee 프로젝트



마음 먼저 챙겨요

2025년 가을호

## Vol. 75



### 미리보는 위(Wee) 뉴스레터

#### 📖 전문가 칼럼 · 02

#####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한 학교상담의 과제

명지대학교 미디어·휴먼라이프대학 청소년지도학전공 교수 이은경

##### 정서행동 위기,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서울특별시교육청 PBS 이야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동중재전문관 백영선

#### 📢 현장의 소리 · 07

##### 내 마음에 따뜻한 불을 켜다: 마음건강행김학교 운영 이야기

내토중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박소영

#####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심는 우리 "SWeeT, 구미 위(Wee) 센터"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실장 김수정

#### 위(Wee) 센터 컨설팅 소회

• 듣고, 견디고, 연결하다: 위(Wee) 센터의 오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 고석현

• Wee, 우리가 가야 할 길~!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 위(Wee) 센터 실장 김경은

• 지원단과 떠나는 전국 위(Wee) 센터 맛보기 여행~!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실장 강주연

#### 📖 이슈브리프 · 17

##### 청소년 중독문제의 실태와 예방 및 치료방안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주은

### 위(Wee), 알려드립니다



#### 📖 위(Wee) 뉴스레터 원고 모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에서는 위(Wee) 프로젝트의 정책, 운영 현황, 성과, 우수사례, 행사 안내 등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위(Wee)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수록될 원고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 | 위(Wee) 프로젝트 관련 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 **제출방법** | wee2024@nypi.re.kr로 제출 **문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김소연

전문가 칼럼

#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한 학교상담의 과제

명지대학교 미디어·휴먼라이프대학 청소년지도학전공 교수 이은경

※ 본 칼럼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서행동 위기 심화

급격한 사회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전은 청소년에게 학업·진로, 대인관계, 디지털환경 적응 등 복합적인 도전과 과제를 안기고 있다. 여성가족부(2025)에 따르면, 2024년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전년 대비 5.0%p 증가하였고, 중학생(41.3%)보다 고등학생(43.4%)이, 남학생(35.2%)보다 여학생(49.9%)이 스트레스를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도 중·고등학생은 27.7%로, 중학생(27.9%)이 고등학생(27.5%)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의적 자해 및 자살은 여전히 청소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에게 교육적 공간이면서도 심리·정서위기에 대응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정서행동위기학생이란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위험요인으로 학교에서 요구되는 교육활동이나 일상적인 학교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서울시교육청, 2025). 최근 교육부는 '정신건강' 대신 '마음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모든 학생을 심리지원 서비스의 대상으로 확장하였다(교육부, 2024). 이는 기존의 '정서·행동장애 학생'이나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이 아닌 '모든 학생'을 예방적 개입의 대상으로, 그리고 '위기학생'을 전문적 개입 대상으로 재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허난설 외, 2025).

###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한계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전문적 개입은 학교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 혹은 전문상담사의 역할에 달려있다(김혜숙,

안성희, 2023).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는 우울과 불안, 자살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으로 인한 대인관계 곤란, 학교부적응, 디지털 과의존문제, 학교폭력 가피해 등의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발달은 다양한 발달적 위기를 겪는 취약성이 있다. 여기에 입시의 압박, 가족 갈등, 친구와의 갈등,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 등의 환경적 취약성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복합적 취약성은 정상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유하나, 2024).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 위(Wee) 클래스에서 학교적응이나 사회성발달 등의 심리교육부터 학교폭력, 디지털 과의존, 자해·자살 등 고위기상담까지 전 범위의 학교상담을 1인의 전문상담교사가 담당하는 실정이다(김혜숙, 안성희, 2023). 교육지원청의 위(Wee) 센터도 1인 이상의 상담인력이 있으나 각 학교에서 의뢰되는 고위기상담과 부모상담, 교사자문 등 다양한 요구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과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세 가지 과제

상담은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에서의 실습이 병행되어야 하는 실천학문(안현의, 2003)이다. 그리고 상담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상담자의 전문성이다(정진철, 양남미, 2018). 청소년상담은 미성년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비밀보장과 이중관계 등 복합적인 윤리적 쟁점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상담과는 다른 특별한 전문성(이지원, 오인수, 2016)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학부의 교육과정이나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연수에서도 사례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수퍼비전은 부족한 편이다. 현재는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서 필요한 실습은 단 4주간의 교생실습이 전부이며, 배치 후에도 사례중심의 수퍼비전 체계는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❶ 상담실습 교육의 내실화**

학생의 정서행동문제는 점점 더 복잡적이고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교사이면서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어려운 역할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돌볼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전문상담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상담실습의 교과목은 상담의 실재를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위(Wee) 클래스 우수상담사례집 등의 상담사례 활용방안과 실습매뉴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례별로 학생들이 내담자와 상담자 역할 맡아 체험위주의 모의상담 실습과 고위기 사례개입 방안과 학교 내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등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❷ 상담실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가능하다면 안정적 상담실습을 위해 현장기관과 상호적·공식적 협력체계를 마련(김선혜, 한영주, 2019)할 필요가 있다. 아직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상담현장에서의 직접 내담자 혹은 부모를 만나는 실습은 매우 어렵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상담실습과 인턴십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못하다. 정서행동 위기기의 고위기 상담을 상담경험이 미흡한 실습생에게 의뢰할 수는 없다. 게다가 학교상담은 미성년자인 학생 내담자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어려움이 있고, 학부모와 자녀간의 비밀보장,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비밀보장과 이중관계 등 매우 민감한 윤리적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실습생의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는 실습매뉴얼과 실습과 관련된 상담윤리강령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❸ 체계적 수퍼비전 제공**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수퍼비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보 전문상담교사가 역량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사례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퍼비전이 필수적이다. 특히 고위기 상담사례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자문보다는 상담자의 초기 반응, 개입방식, 학부모상담, 외부기관 연계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수퍼비전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동료수퍼비전, 비대면 방식의 활용 등으로 안정적인 수퍼비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비전문상담교사 학생에게 진로선택동기를 물을 때마다 학생들은 상담교사와의 만남을 이야기한다. 청소년의 발달과정

에서 자신이 경험한 혹은 지켜보았던 상담경험은 성장의 디딤돌이 된다.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의 향상과 함께 전문성 강화방안 역시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2024).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교육부 (2025).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김선혜, 한영주 (2019). 상담 현장실습생들의 집단 수퍼비전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20(3), 243-264.  
 김혜숙, 안성희 (2023). 전문상담교사들의 실무능력배양 위주의 교육과정 모색을 위한 1급 자격연수 교육과정의 현황분석. 교원교육, 39(5), 23-47.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안현의 (2003). 과학자-실무자모델의 국내 적용가능성에 관한 논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61-475.  
 여성가족부 (2025). 2025 청소년통계.  
 유하나 (2024). 청소년기 전반적 사회정서 발달과 발달적 위기. 한국심리학회지:일반, 43(4), 323-345.  
 이지원, 오인수 (2016).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발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7(4), 351-372.  
 정진철, 양남미 (2018).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개관연구. 상담학연구, 19(4), 47-70.  
 허난설, 허무녕, 서다연, 박지수 (2025). 마음건강 위기학생 통합지원에 대한 교원들의 경험과 정책개선 의견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43(1), 215-245.



전문가 칼럼

# 정서행동 위기,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PBS 이야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동중재전문관 백영선

※ 본 칼럼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교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교사의 고민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 '갑작스럽게 교실을 이탈하는 학생'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교원 대상 조사에서도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빈번한 문제 행동으로는 '혼자 또는 다른 학생과 떠들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동'과 '욕설 등 공격적·적대적·오만·건방진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정서·행동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수업참여와 교우관계는 물론 교실 운영 전반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2022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전국 유·초·중등 교원 및 전문직 8,655명)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는 빈도로 '10회 이상'이 36.3%로 가장 많았고, '거의 없다'는 2.6%에 그쳤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문제행동이 일상적으로 인지될 정도로 빈번함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교사에게 수업과 생활지도를 동시에 책임지면서 돌발행동으로 인한 안전 우려, 수업 흐름의 반복적 중단, 학급 분위기 회복의 어려움 등 상당한 정서적·업무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학부모·동료·관리자와의 소통 부담, 사안 처리 과정의 문서 작성과 행정 절차, 사후 민원 가능성에 대한 긴장까지 더해져 정서적 소진과 역할 갈등이 심화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2024년 조사에서도 교원들이 교직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1.7%)'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약 24%)'를 꼽았고, 두 항목을 합하면 과반(56.7%)이 학생 생활지도와 밀접한 고충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4). 결국 현장에는 무엇을, 어떤 절차로, 수업에서 즉시 실행할 것인지를 안내하는 표준화된 예방·대응 체계와 코칭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교사가 교육적인 방식으로 지속 가

능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년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학생·교원·학부모 모두의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은 학생 상담과 심리·정서 지원을 토대로, 교실에서 교사가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분리·보호를 시행하되, 일상적 지도에서는 수업 맥락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전략과 도구로 학생의 학습참여와 성장을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실행의 중심에 '긍정적행동지원(PBS, Positive Behavior Support)'이 있습니다.

PBS는 특수학교에서 효과가 입증된 교육적 시스템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일관되게 강화하여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접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일반학교 현장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여건에 맞춘 다양한 현장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행동중재전문관이 한 학기 동안 1:1로 협력하는 정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실에서 PBS를 쉽고 명확하게 실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학교 차원 PBS 사업을 신규 도입 및 확대하여 각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며, 문제행동 예방과 효과적 행동중재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의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실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학교급관리·행동중재 전략을 익히고 실행하도록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학교·가정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대상 PBS 연수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PBS의 철학과 방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참여 교사들은 “교사로서 시도할 수 있는 전략을 배웠다.”, “학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소감을 밝혔으며, 결과보고회와 설문조사에서는 초기에 가졌던 “더 이상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과연 이런 방식들이 아이를 바꿀 수 있을까?”와 같은 회의적 인식이, PBS 과정을 거치며 변화했다는 점이 반복해서 언급되었습니다. 학생 행동의 기능과 발생 맥락, 그리고 그 행동이 왜 강화·유지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자, 교사들은 “교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울러 성공 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PBS가 모든 학교로 확산되어 더 많은 교사가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안전과 학급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의료·상담 연계를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수와 현장지원을 거치며 교실 안에서 실행 가능한 예방·대응 전략을 우선 탐색하려는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실 밖 연계와 교실 내 지원이 상보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교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몇 가지라도 있다면 해보겠다.”는 태도로 전환되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고무적이며 희망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학교차원 PBS 사업의 신규 도입 및 확대 이후에는, PBS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학교의 일과와 생활지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과 그 실행 수준을 꾸준히 높여 가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모든 학교가 보편적 지원(1차 예방)부터 집중·개별 지원(3차 예방)까지 이어지는 다층 체계

를 수업과 생활지도 루틴으로 구현하도록 △기대행동의 명문화와 명시적 가르침 △일관된 강화와 환경·과제 조정 △표준화된 Tier 2 운영 절차(선정-목표 설정-중재-진행 점검-종결) △기능기반평가(FBA)·행동중재계획(BIP)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정기 코칭·컨설팅 주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가 자생적으로 학업과 행동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에서부터 집중적·개별적 중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MTSS)의 기반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PBS/MTSS 체계를 구축하여 단위학교가 자생적으로 학생의 학업과 문제행동을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지원이 상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문제행동은 학업적 어려움, 사회적 기술 부족, 수업 구조와 환경의 부적합성 등 구체적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상담은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핵심 경로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동시에 PBS라는 체계 안에서 환경 조정, 명시적 가르침, 일관된 강화, 대체행동 지도 등 교육적·행동적 지원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즉 정서·상담 지원이 학생의 마음을 돌보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면, PBS는 교실과 수업 속에서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과 학업적 성취를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공합니다.



한편, 올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가 신설되어 정서행동 위기학생 긴급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위기학생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확대되고, 교원이 교육활동 중 긴급 상황에서 학생의 위해 행동을 제지하거나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문제는 한 학생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학급 전체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권,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원방안과 긍정적행동지원 사업,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이러한 복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상호보완적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교실에서 시작된 변화가 한 학교

의 표준이 되고, 그 표준이 서울 전역의 기준으로 확산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교실·학교·교육청·법제도가 유기적으로 맞물린 체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성장을 성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방 중심의 루틴과 데이터 기반 점검, 상담-PBS 연계를 일과로 정착시켜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실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서울의 학교는 위기를 '관리'하는 곳을 넘어, 학습과 성장을 '설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 참고문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2). 교원 95%, 교육기본법 등에 생활지도권 명시해달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4).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현장의 소리** 위(Wee) 클래스

# 내 마음에 따뜻한 불을 켜다 : 마음건강챙김학교 운영 이야기

내토중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박소영

Newsletter



최근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낮설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의 42.3%가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으며, 우울감 경험률은 27.7%로 2023년에 비해 1.5%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데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마음의 힘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챙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주요 활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 내 마음 돌보기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에는 1학기 상담 주간에 맞아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마음 돌보기」 심리검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CATi(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 MLST-II(학습전략검사), CST-A(성격강점검사) 등을 통해 자신의 성격 특성과 학습 스타일, 강점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 나만의 마음챙김 물병 만들기



우리의 뇌는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에 따른 감정 반응이 생리적으로 약 90초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짧지만 이 강렬한 순

간에 잠시 멈춰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보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반짝이 모래나 글리터 조각 등을 물병에 담아 만들고, 그 물병을 바라보며 호흡을 연습하는 마음챙김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격해진 감정도 잠시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지나간다는 사실과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사제동행 프로그램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이나 소통이 어색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과 담임선생님이 짝을 이루

어 자개를 활용한 스마트폰 그림톡 만들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평소 쉽게 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며 선생님과 한층 더 깊은 신뢰를 쌓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학교생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과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었다.”,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선생님과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과 함께 할 수 있어 사제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 학생과 대화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는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음 On Days(온 데이즈)**  
**: 내 마음에 따뜻한 불을 켜다**

1학기 말,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는 「마음 On Days(온 데이즈)」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여러 고민을 안고 지내온 학생들이 스탬프 형식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해 학교 곳곳을 자유롭게 다니며 '마음으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행사는 위(Wee) 클래스, 보건실, 도서관, 복지실 등 여러 공간에 계신 선생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더욱 다채롭고 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스명(장소)	활동 내용
마음 주사위 공방 (위(Wee) 클래스)	학생들이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긍정적인 문구를 원목 큐브에 직접 작성합니다. 큐브(주사위)를 굴리며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정원 (도서관)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이용해 나만의 하바리움을 만들어봅니다. 정성스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서 이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 베이커리 (보건실)	간이 스트레스 자가 테스트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한 후 포춘쿠키 속에 담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며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스트레스 지우개 (복지실)	자신의 스트레스 원인과 효과적인 해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봅니다. 적은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대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흑백상담사 (학생부 교무실)	타로카드를 선택하고 해석하면서 평소 마음 속에 담아둔 고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신뢰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챙김학교를 운영하며...**

위(Wee) 클래스는 언제나 열려 있지만 그 문을 여는 일이 쉽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마음건강챙김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이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위(Wee) 클래스를 찾아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만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이런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위(Wee) 클래스가 학생들에게 마음의 쉼터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마음 On Days(온 데이즈)' 활동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포춘쿠키 문구가 요즘 나에게 필요한 말이라 울컥했다.", "학교 곳곳을 다니며 체험하다 보니 학교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이런 행사가 다음에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스위치를 켜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따뜻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의 소리** 위(Wee) 센터

#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심는 우리 “SWeeT, 구미 위(Wee) 센터”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실장 김수정



## 구미 위(Wee) 센터 소개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 위(Wee) 센터는 2009년 12월 22일 개소한 학생상담센터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심는 우리 SWeeT”라는 모토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102개 학교를 대상으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등 10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평가·상담·연계를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상북도교육청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사업 운영

경상북도교육청은 ‘살피고, 담고, 잇는’ 온(溫) 마음 돌봄을 통해 회복되는 교육공동체를 비전으로 삼고, 기존 위(Wee) 프로젝트를 보완하여 학생 마음건강 지원의 허브로서 위(Wee)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미 위(Wee) 센터는 경북형 개편 모델로서 예방-전문성 강화-개입 및 연계를 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溫) 살피다’는 학교 현장 중심의 마음건강 예방활동과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를 마련합니다. 구미 위(Wee) 센터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심리 지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표 1 참고).

〈표 1〉 추진과제 1. 온(溫) 살피다 (예방)

시범사업 추진 과제	주요 추진 내용
온(溫) 살피다 (예방)	<b>경상북도교육청</b> 마음건강 안심은 시스템 구축 - 위기 학생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위기징후(자살, 자해 등)에 따른 단계 지정과 단계별 맞춤형 개입을 통한 학생 마음건강 보호 및 회복 지원 - 1단계(예방), 2단계(관심), 3단계(주의), 4단계(응급) 경북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마음성장학기제 시범 운영(초등 7개교, 중등 3개교) - 경상북도교육청 인증도서 2종(초5, 중1) 보급 활용
	<b>구미 위(Wee) 센터</b> 구미 위(Wee) 센터 마음건강 안심은 시스템 기반 학교 심리지원 운영(집단상담, 집단교육) - 객원 상담(임상)심리사 18명 위촉 - 안심은 2단계 이상 학교(10개교) 대상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실시 구미 스윗온(SWeeT-ON) 학교상담공동체 운영 - 관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95명)를 9개 구역으로 편성 및 활동 - 경북형 학생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MAP) 활용, 동료 수퍼비전, 위(Wee) 클래스 우수사례 공유, 활동자료 개발 등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9개교) 순회상담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한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 캠페인 실시 (생명존중캠페인 1회, 학업중단예방캠페인 4회) 학부모 교육 운영 - 1학기: 가족 소통을 주제로 50명 대상 교육 실시 - 2학기: 소그룹 4회기 학부모 교육 예정

‘온(溫) 담다’는 위(Wee) 센터와 위(Wee) 클래스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합니다. 경북-학교상담리더를 구성하여 위(Wee) 클래스 현장 컨설팅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상담역량강화

를 위한 연수 운영, 자격연수 취득비 지원, 전문가 실습형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표 2 참고).

〈표 2〉 추진과제 2. 온(溫) 담다 (전문성 강화)

시범사업 추진 과제	주요 추진 내용	
온(溫) 담다 (전문성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경북-학교상담 리더 구성·운영(33명 위촉) - 위(Wee) 클래스 컨설팅 가이드북 발간
		경북형 상담기록시스템 구축(2025 하반기 시범 운영) / 특별교육 프로그램 자료 개발 및 보급 완료
	구미 위(Wee) 센터	경북-학교상담리더 관내 학교 위(Wee) 클래스 컨설팅 지원 - 구미 위(Wee) 센터 소속 리더 2명 - 실무경력 2년 이하 전문상담(교)사 대상 컨설팅(8개교)
		상담인력 전문성 향상 연수 - 상담 관련 자격 취득 연수(7월 28일~30일, 총 24시간 교육 수료) 위기상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사례 수퍼비전(8월 20~21일, 총 10시간)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전문성 향상 연수 - 1학기(4월 1일, 4월 3일, 7월 9일, 7월 10일 실시) 연차별 자격 취득 연수 운영(2학기) - 관내 전문상담인력 95명 대상으로 저경력, 중경력, 고경력으로 나누어 연수 추진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사례 수퍼비전 - 대면 및 줌 활용하여 15명을 대상으로 수퍼비전 운영
	1학기 위(Wee) 센터 및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상담자 소진관리 프로그램 운영(11명, 1회 운영) 2학기 상담자 소진관리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대상 치유 연수	

‘온(溫) 잇다’는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합니다. 구미 위(Wee) 센터 온기지원단 중심으로 지역사회 허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동네 마음건강 포켓지

도’를 제작·보급하여 전문기관 접근성을 높이며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자원 안내를 실현합니다(표 3 참고).

〈표 3〉 추진과제 3. 온(溫) 잇다 (개입/연계)

시범사업 추진 과제	주요 추진 내용	
온(溫) 잇다 (개입/연계)	경상북도교육청	관심군 학생 검사 치료비 지원 확대 / 학생 마음 바꾸쳐 지원 사업 운영 위(Wee) 센터 정신과 전문의 자문 및 위(Wee)닥터 활성화
	구미 위(Wee) 센터	위(Wee) 센터 상담 서비스 운영 - 심리상담, 학업중단속려제, 심층평가, 학교폭력 특별교육, 학교폭력 피해상담 등 학교 위기사안 자문 활동(106건) / 학교 위기상황 심리지원(2개교, 10회) 정신과 전문의 자문(70명)
		위(Wee) 온기지원단 구성·운영 - 학생 마음건강 공동 지원체계 구축 - 경상북도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지역 유관기관, 정신과 전문의, 대학교수 등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집단
	우리동네 마음포켓지도 제작 및 보급 -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자원 정보 안내로 전문기관 접근성 강화	

### 경상북도교육청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

구미 위(Wee) 센터는 학교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심리지원을 제공하고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마음건강 안심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학교 맞춤형 심리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 프로그램(집단상담, 집단교육)을 비롯해 전문가 자문집단인 구미 위(Wee) 온기지원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객원상담사 및 객원임상심리사 18명 위촉하여 위기학생과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안심온 2단계 이상인 10개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때 위기징후가 관찰되어 발굴된 학생은 구미 위(Wee) 온기지원단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개입 체계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사례를 관리하며, 기존 구미 위(Wee) 센터의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 마치며

경상북도교육청 위(Wee) 프로젝트 개편 모델로서 구미 위(Wee) 센터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학생 마음건강 지원의 허브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큰 자부심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에 실제적 지원이 확대되어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미 위(Wee) 센터는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지역의 많은 선생님들과 동행하여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현장의 소리**

위(Wee) 센터 컨설팅 소회



## 듣고, 견디고, 연결하다 : 위(Wee) 센터의 오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 고석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곁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상담자로서, 그리고 전국 위(Wee) 센터 지원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저는 이 말을 더욱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위(Wee) 센터를 직접 찾아가며, 단지 컨설팅을 넘어서 '곁에 서보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24년 대전, 2025년 전북·서울·전남 지역 위(Wee) 센터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지역과 환경은 달라도 위기학생을 향한 상담자들의 진심 어린 마음만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Wee) 센터는 지역의 조건, 인력 구조, 운영 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결국 모든 현장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위기를 더 빨리, 더 깊이 알아차릴 수 있을까?”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개입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 질문에 대한 현장의 답은 시스템이 아닌 언제나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학생 곁에 서으려 애쓰는 사람, 바로 상담자였습니다. 매 현장에서 마주한 것은 수많은 제약 속에서도 끝까지 학생 곁에 있으려는 상담자들의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 점점 늘어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들은 ‘학생이 나를 통해 숨 쉴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결국 센터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고 그 따뜻한 단단함이야말로 위(Wee) 센터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많은 상담자들은 위기학생 상담은 물론 사후관리, 학부모 및 교사와의 협업, 행정 업무까지 폭넓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마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시간과 여유, 함께 일할 동료가 없다면 그 마음은 점점 지치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역량 있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들이 우리 곁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결국 상담자의 사명감은 제도적 지지와 충분한 인력 확보, 그리고 함께 버텨낼 동료들 속에서 비로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확인한 것은 상담자의 수고가 단지 한 학생을 돕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전체의 교육 생태계를 살피는 일이며 제도와 현장 사이를 연결하고 위기와 회복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상담자의 시선이 닿은 한 명의

아이는 결국 그 학교를 그 지역을 그리고 그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저는 컨설팅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듣는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존중하며 함께 고민한다는 것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상담자는 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현장을 통해 깨달은 것은 '상담자 역시 누군가에게 들어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상담자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구조, 쉬어갈 수 있는 여백,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언제나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 안에는 매일같이 아이들을 만나며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정책에 닿고, 제도로 이어지며, 진짜 변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그것이 컨설팅의 진짜 목적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Wee) 센터가 단절이 아닌 연결의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와 학교, 센터와 지역사회, 그리고 상담자와 상담자 사이가 서로 닿아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게, 단단하게 학생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전국의 상담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의미 있는 연결의 일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Wee, 우리가 가야 할 길~!!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 위(Wee) 센터 실장 김경은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의 방향성과 위(Wee) 센터의 정체성**

'한 학생'을 소중히 품기 위해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를 위한 위(Wee) 센터 컨설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의 방향성과 위(Wee) 센터의 정체성'이다. 그 이유는 위(Wee) 센터(이하 '센터'로 칭함)라는 명칭은 같지만 각 센터의 형태와 구성, 수행 업무 범위가 각각각색이었기 때문이다.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나 직종의 종류가 지역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시도교육청 안에서도 다른 경우도 있었다.

각 센터의 구성은 예컨대 전문상담교사로만 이루어진 센터도 있었고,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로 구성된 형태, 전문상담교사와 임상심리사로 구성된 형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센터도 있었다. 가장 놀라웠던 인원 구성은 전문상담사로만 구성된 센터였다. 게다가 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역할)도 천차만별이었다. 그러다 보니 실장이 맡고 있는 업무도 많이 달랐다. 어떤 지역은 과연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게 맞는지 의아한 경우도 있었다. 정말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역의 센터 실장들이 처한 상황도 여건도 달라 함께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 눈앞에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개전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과연 이런데도 우리가 같은 위(Wee) 센터라고 할 수 있을지 동일한 정체성 아래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스러웠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안타까움'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여건에 맞게 최선을 다해 운영하느라 소진된 실장님들이 눈에 밟혔다. 지역의 요구에 맞춰 가정 방문을 해야 하는 센터도 있고 농촌·산간 지역에 있는 어느 센터는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센터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하는 곳도 있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불필요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리저리한 사정을 맞추며 운영하다 보니 정작 센터에서 운영되어야 할 내방 상담이나 출장 상담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자살이나 성 사안 등이 생기면 센터는 위(Wee) 클래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상담 지원을 시기적절하게 지원해야 하는데, 상담과 조금 거리가 있는 여러 다양한 업무 운영으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高)위기 학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상담 지원에 매진해야 함에도 주객이 전도된 각종 프로그램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위기 지원을 할 때 여력이 없어 급격하게 소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위 기감마저 느끼게 했다.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지 않은가? 특히 센터는 학교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임에도 다양한 상황으로 근무하기가 더 녹록지 않다 보니 센터가 점점 기피 근무지로 인식되는 상황 또한 너무 안타까웠다. 그 결과, 전보 선호 지역이 아닌 센터는 신규 교사가 센터에 발령받아 실장을 맡는 경우도 있었다.

세 번째 드는 생각은 '분노'였다. 전문상담교사로 '문제 학생은 없고, 단지 낙담한 학생만 있을 뿐'이라는 심리학자 아들러의 가치관을 따라 '낙담한 한 학생'을 만나기 위해 임용고시를 봤던 나는 상담교사가 상담에 전념할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분노했다.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전공을 한 교사가 있다. 그 이유는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한 학생'을 제대로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업을 하고,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등 상담과 다소 거리가 있는 일에 치우치는 것은 나와 우리 동료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돌리고, 지역 사회로 연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상담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대체 불가한 인력자원을 너무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다시 첫 번째 의문으로 돌아가서, 위(Wee) 센터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한다. 마중하 시인의 『딸을 위한 시』에서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 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라고'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학교 현장에 처음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고, 위(Wee) 센터가 생겼을 때의 의도는 아마도 우리 전문상담(교)사에게 이런 역할을 기대했을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학교 폭력 피해로, 도래 관계 문제로, 학업 스트레스로 홀로 힘겹게 그리고 나름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한 학생'을 따스한 관심으로 관찰하고 든든한 정서적 지원을 해 주는 교사의 필요에 기반한 것인데……. 과연 현재 위(Wee) 프로젝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위(Wee) 센터 컨설팅이었다.

결론적으로, 위기 학생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학생과 상황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해 버린 상태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따스한 시선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위기 학생들을 품을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진행되는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같은 정체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 위(Wee) 센터 컨설팅이었다.



## 지원단과 떠나는 전국 위(Wee) 센터 맛보기 여행~!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실장 강주연

교육부는 2024년부터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을 위한 전국 위(Wee) 센터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각 지역 위(Wee) 센터의 우수사례 공유 및 맞춤형 자문을 통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원단으로서 동서남북 각 지역의 위(Wee) 센터를 방문한 소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우리가 희망이다!”라는 것이다. 위기학생 안전망 확충, 학교적응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 위기 학생들에게 다시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위(Wee) 센터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원단으로서 먼저 경험한 위(Wee) 센터 우수사례를 맛보기 여행 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자발적 봉사단체 「맘-품지원단」 -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의 ‘맘-품지원단’의 활동은 현장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모범적인 협력사례였다. 관내 전문상담(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위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위(Wee) 클래스와 위(Wee) 센터 안전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고무적이었다. 이런 자발적 시스템은 학생의 심리·정서적 회복은 물론, 참여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긍심 고취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었다.

### 정형화된 틀을 깨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자리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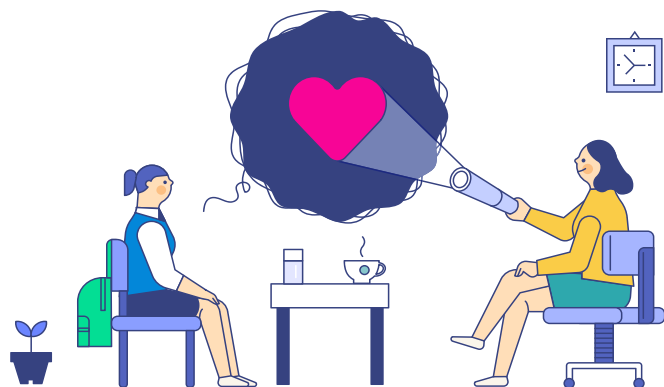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기존의 획일화된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집단상담은 일회성 교육이나 체험 위주의 활동지 활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반면, 부안 위(Wee) 센터는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해 학생들의 참여와 몰입도를 크게 높이고 있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역경을 딛고 자신의 비전을 이룬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삶의 희망과 자존감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단순한 상담이나 교육을 넘어,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라 생각한다.

**위기 속에서도 빠르고 체계적인  
손길, 충청마지의 힘**  
-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에서 운영 중인 '충청마지(춘천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프로그램은 위기학생을 위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이다. 특히 자해나 자살 시도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통합지원 방향을 모색하며, 지역 기관 자문위원 위촉을 통한 협의체 구성과 통합사례회의의 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이 돋보였다. 또한 트라우마 전문 훈련을 받은 상담교사들이 권역별로 구성되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청소년 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 자문을 위해 교수들이  
뭉쳤다. 자문교수단 「위풍당당」**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실장으로서 우리 센터에서도 자랑할 만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천안 위(Wee) 센터에서는 단위학교 위기관리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자문교수단 「위풍당당」을 운영한다. 위풍당당은 충청남도 내 전·현직 교수와 학회 공인 수퍼바이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정신과 자문의 사업과 별개로 전문적 상담자문을 제공한다. 학교 요청 시 위기관리위원회 참석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사례회의, 상담교육을 진행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원단으로서 여러 위(Wee) 센터의 컨설팅을 진행할수록 더 풍성한 정보와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는 만큼 배운다'라는 말처럼 여러 지역의 우수사례를 경험하면서 소속된 위(Wee) 센터의 사업을 더욱더 풍성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간략하게 맛보기 여행으로 위(Wee) 센터의 우수사례를 소개했지만, 58명의 지원단의 결과물이 합쳐져 우수사례가 공유된다면 전국 위(Wee) 센터 사업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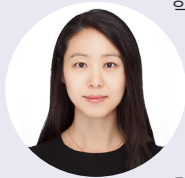
## 이슈브리프

## 청소년 중독문제의 실태와 예방 및 치료방안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대전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김주은

Newsletter

※ 본 칼럼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 장면에서 청소년의 중독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다루기 어려운 이슈이다.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게임중독 같은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한 2024년 아동청소년 게임행동 종합 실태조사(아동 및 보호자 3,500명, 청소년 12,000명 대상)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이용 문제군(3.4%)과 잠재문제군(6.2%)을 합한 비율이 9.6%로 나타났다. 즉 10명 중 한 명은 게임행동 조절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문제를 겪는다는 것이다. 특히나 중학교에서의 비율이 11.1%로 초등학교(9.1%), 고등학교(8.7%)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도박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보고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청소년 13,368명 대상)에 의하면 청소년의 4.3%가 1회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19.1%는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했으며 경제적 문제 및 일상생활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단순히 도박을 한 것을 넘어서 청소년의 48.8%가 도박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의 마약 접근성도 높아져 청소년 마약사범은 10년 전인 2015년에 128명에서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 2022년에는 481명으로 점점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1,477명으로 2015년 대비 10배 이상이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25). 2024년에는 다행히 649명으로 이전 년도 대비 확연히 감소된 결과를 보였으나,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청소년 중 사범으로 잡히지 않는 수(즉, 암수울)는 현재 집계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나 뉴스에서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위 청소년들의 권

유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뉴스에서 보도되는 텔레그램 등의 방법이나 조건만남 등의 성인과의 접촉을 통해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는 인터넷, 게임중독 스크리닝 척도를 사용하여 문제군을 선별하여 상담을 하거나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를 조기에 탐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보고식 척도의 한계로 인해 '순진한 사람들만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척도에 보고하지 않아서 선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독 예방교육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중독의 폐해를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흥미가 떨어지는 교육으로 인해 그 효과성이 유명무실 해지거나 또는 오히려 도박,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단순히 선별 척도에 의존할 수 없으며, 또한 예방 교육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선별척도를 넘어 청소년 중독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서/심리 요인들에 대한 교사들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2012)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 심리욕구에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결핍될 경우 사람은 몰입할 것을 찾는다. 그것이 몰입의 수준을 넘어갈 때 중독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청소년에 적용해 보면, 극도의 통제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 학업 및 기타 영역에서 유능감이 크게 떨어지는 아이, 친구들과의 관계의 결핍이 있는 아이의 경우 등이 중독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아동청소년 게임행동 종합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게임행동의 가장 큰 이유가 성취감, 전략 유능감이라는 보고도 이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런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하루에 게임을 하는 시간 등(예를 들어 게임중독 문제군의 50%가 하루에 8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것으로 보고됨)을 체크하여 문제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방 교육에 관련해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독 예방교육의 내용에 대해 청소년의 입장에서의 피드백을 듣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되, 동시에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교육내용을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자녀의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로, 부모 세대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스마트폰 사용, 게임, 나아가 도박까지 이어지는 행동들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데 혼란이 크다. 따라서 단순히 학교에서 안내문을 가정으로 보내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기기의 적절한 사용과 중독 수준의 구분, 그리고 과도한 통제도 과도한 허용도 아닌 균형 잡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참여형 예방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에는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마약의 신체적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또 오히려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마약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마약의 다양한 종류를 소개하는 경우들도 있다. 마약 예방교육에서는 마약 종류별로 신체적 폐해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으로 인해 삶이 피해를지는 청소년 사례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약은 신체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삶에 대한 희망, 가족 관계, 학업, 법적인 책임 등 여러 영역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단순한 호기심이나 주위의 권유, 또는 영웅심리 등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위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장면에서 마약을 권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거절할 것인지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권유할 때 호기심으로 들 수 있는 생각들을 미리 한번 이야기해 보고, 내가 마약을 하게 될 때 잃을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적어보고, 그때 '나는 그런 건 안 해'라던지 간단한 자신만의 거절 시나리오를 준비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청소년의 중독상담은 동기강화상담의 정신과 기술을 활용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독 문제를 빠르게 '교정'하기 위해 중독 행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동기강화상담 정신에 기반하여 그러한 교정반사를 내려놓고 먼저 청소년들이

중독행동으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독 행동으로 인해 얻는 것을 다른 행동으로 얻지 못한다면 결국 단순히 행동적 지침 같이 게임시간을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중독행동을 장기적으로 고치기 어렵다. 동기강화상담의 기술에는 OARS(열린질문, 인정하기, 반영하기, 요약하기)가 있는데 특히 청소년 중독 문제는 답이 정해 있는 듯한 닫힌질문으로는 저항이 일어나기 쉽고, 중독 문제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통제력, 조절력을 보이는 다른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서 자신에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중독은 단순히 중독 의존성만을 줄이거나 고치고자 하는 노력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 중독 행동은 큰 방산의 꼭대기에 드러난 부분일 뿐이지, 그 아래에는 중독을 유도하는 다른 정신 질환이나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중독상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중독은 끊어지는 것이지 끊는 게 아니다." 이는 중독 문제는 다른 문제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면 중독 문제는 저절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독 자체만을 가지고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심리학에서 '북극곰 실험'처럼 '자, 이제 30초 동안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은 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게임과 관련 있는 동종질환중에서는 ADHD, 우울과 같은 정신문제가 빈번하고, 도박이나 마약에서는 충동조절 장애, 품행장애 등을 많이 가지고 있다. ADHD 관리를 위한 정리 및 집중력 향상 코칭기술이나 감정을 다루는 우울상담, 또는 충동을 인식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는 치료 등이 중독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중독문제는 학교에서 상담하기 어려우며 중독 마다의 특성과 치료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 중독에 특화 되어있는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쉼센터, 게임 중독은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임과몰입힐링센터에 연락하여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다. 또한 도박 중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음주문제나 마약문제에 관련해서도 특화된 센터들도 있는데 음주 문제는 (청소년 본인 음주 또는 알코올중독자 가정의 자녀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

지부에서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약 문제는 식약처에 운영하는 한걸음센터에 연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위에서 언급한 센터들은 대부분이 국가가 운영하는 센터로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이 되므로 충분히 이런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문헌**

대검찰청 (2025).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5).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2024 아동청소년 게임행동 종합 실태조사.  
 Deci, E. L., & Ryan, R. M. (2012).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within embedded social contexts: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R. M. Ryan (Ed.), Oxford Handbook of Human Motivation(p. 85-107). Oxford University Press.



소식

# 위(Wee), 알려드립니다!

## 제14회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당신이 희망입니다.

### • 공모 개요

- (목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학생들과 학생 곁에서 든든한 지원이 되어 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고자 함
- (기간) 2025. 08. 20.(수) ~ 2025. 10. 10.(금)
- (대상)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운영 기관, 상담인력 및 참여학생
- (주제)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우수 상담 사례 및 기관 운영 사례
- (부문)

대상	주제
학생 및 상담업무담당자 (2인 1조 팀 지원)	위(Wee)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건강한 학교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위(Wee) 프로젝트 발전에 공헌한 상담업무담당자의 사례
기관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기관으로서 수행한 역할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성과 및 운영 내용

### • 공모 절차

공모 (8.20~10.10)	1차 심사 (10.13~10.24)	2차 심사 (10.27~10.29)	3차 심사 (10.30~11.06)	최종 결과 발표 (11.10)
해당 시도교육청에 응모	교육청별 자체평가단 구성 후 응모작 심사 및 추천 (공모적격 여부 확인)	중앙단위 서류심사	현장 심사 (학생/상담업무담당자 및 기관 부문 대상 후보자)	시상식 (25.11.21)
학생 및 상담업무 담당자, 기관→교육청	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심사위원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시상내역

부문	훈격		시상 수	상금
학생 및 상담업무담당자 (2인 1조 팀 지원)	교육부장관상	대상	5팀(팀당 2명)	100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최우수상	10팀(팀당 2명)	50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우수상	15팀(팀당 2명)	30만원
기관	교육부장관상	대상	2개 기관	현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최우수상	10개 기관	현판

※ 부문별 시상 및 상금 수여(단, 기관 부문은 현판 및 상금 수여) ※ 시상 내역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 방법

- 접수 방법: 제출 양식에 맞추어 해당 시도 교육청으로 접수
- ※ 세부 공모 요강은 각 시도교육청 안내 공문 및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wee.go.kr>) 참고

### • 문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044-415-2258, 2190 / weehope@nypi.re.kr

▶ 주최 / 주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2025년 겨울호

Vol. 76

# 위 프로젝트

Wee

마음 먼저 챙겨요



## 미리보는 위(Wee) 뉴스레터

### ☞ 전문가 칼럼 • 02

**학생의 마음을 지킨 힘, 함께 만든 회복의 여정**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 남숙경  
**아름다운 동행**  
 성수중학교 교장 김영삼

### ☞ 현장의 소리 • 06

**겨울, 아이들의 마음을 데우는 시간**  
 - 대구매곡초등학교 위(Wee) 클래스 이야기  
 대구매곡초등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김민희  
**학교 곁에서 함께 숨 쉬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실장 김병구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우리(Wee)**  
 광주광역시교육청 위(Wee) 스크  
 기쁨과 희망의 돈보스코학교 교무부장 이효지

### 참사랑도담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병원형 위(Wee)센터 교무부장 백윤경

### 2025년 학교상담 리더 양성 연수 참여 후기

- 현장을 잇는 힘, 서로에게서 배우는 학교상담 리더 연수 이야기  
 천안북중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김아람
- 학교 공동체의 희망을 키우는 리더로 내 역할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배움의 순간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 박수연

### ☞ 이슈브리프 • 20

**함께 성장하는 학교상담, 학교상담 리더의 길을 열다**  
 서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이지혜  
**청소년의 마음 길잡이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와 시사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역량개발본부장 소수연

## 위(Wee), 알려드립니다



### ☞ 위(Wee) 뉴스레터 원고 모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 지원센터에서는 위(Wee) 프로젝트의 정책, 운영 현황, 성과, 우수사례, 행사 안내 등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위(Wee)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수록될 원고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 | 위(Wee) 프로젝트 관련 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 **제출방법** | wee2024@nypi.re.kr로 제출 **문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 지원센터 김소연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 지원센터

**발행인** 백일현 **편집인** 김영지 **편집담당** 김소연·주예찬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 지원센터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 지원센터  
 전화 044-415-2258 **이메일** wee2024@nypi.re.kr

전문가 칼럼

# 학생의 마음을 지킨 힘, 함께 만든 회복의 여정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 남숙경

※ 본 칼럼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제14회 위(Wee) 프로젝트 우수 사례 공모전은 학생들이 직면한 마음 건강 문제가 얼마나 다층적이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사회정서학습(SEL)을 통해 정서 조절과 관계 기술이 향상되며 학급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회복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마음은 훨씬 복잡해졌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해·자살 위험이 가파르게 증가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환기에는 불안, 죄책감, 정체성 혼란이 겹치며 상담실이 필수적인 안전공간으로 기능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유년기부터 이어져 온 심리적 복합외상의 형태로 다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고, ADHD, 중독, 신체화, 다문화 배경 등 개별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도 두드러졌다.

이처럼 학생들의 문제는 단편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만큼 상담자의 역량과 전문성의 중요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학생의 회복 과정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첫 번째 토대는 언제나 상담관계였다. 학생이 자신의 마음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이 관계적 안전감은 학생이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나아가 상담자들은 개인상담에 머물지 않았다. 학생이 또래집단 프로그램, 정서조절 훈련, 진로탐색 등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문제 완화를 넘어 학교 적응감 전반을 높이고자 다층적으로 개입하였다.

특히 위기 사례에서는 자해·자살 안전 확보와 감정 조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진로·진학, 학업, 학교생활 적응 등 학생이 마주한 현실적 과제까지 함께 다루는 다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상담자들은 교내 자원과 연계하여 지지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학생이 다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제안하며, 위기 이후 회복의 경로까지 함께 설계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학생을 돕는 과정이 상담자와 학생의 상담실 안에서의 개입과 더불어 상담실 바깥에서 작동하는 자원과 시스템의 움직임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상담자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필요한 개입 방향을 안내하였고, 일상에서 그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해 왔다. 또한 교내 여러 자원은 물론, 지역사회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이 안전한 관계망 속에서 지지받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왔다. 결



국 올해 사례의 중심에는 '학생을 둘러싼 교내외 시스템 전체를 연결하고, 지지적으로 재구성하여 이루어진 '맞춤형 개입'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이 학생의 실제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상담자들은 단순히 위기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 학생이 다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학교마음건강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 학생을 발견하고, 정교하게 사례를 개념화하며, 교내·외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설득해 일상 속 개입이 지속되도록 조율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이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과 세심한 정서노동이 함께 요구되는 복합적인 작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성과 헌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소진을 예방할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상담자가 자신의 정서를 점검하고, 전문적 개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슈퍼비전, 임상적 자문, 전문 연수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때, 상담자의 전문성과 상담관계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더 많은 학생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올해 사례가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복합외상, 자해 및 자살 위험 등 고위기 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기개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학생의 작은 변화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심리검사와 초기 개입을 통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학교 차원의 스크리닝 체계, 교사의 초기 관찰 역량, 교내외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등 위기 이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다층적 시스템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학생을 지키는 일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의 조기개입이 가능한 학교 시스템이 함께 움직일 때 학생의 회복과 성장은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Newsletter

올해 공모전에 담긴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난 학생들의 이야기는 위(Wee) 프로젝트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학생의 변화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그 뒤에는 언제나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 준 상담자, 그리고 그 곁에 함께 지켜 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공모전은 그 조용한 헌신을 기리는 자리이자, 우리 교육이 앞으로 어떤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위(Wee)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학생의 마음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탱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누군가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하길 기대한다. 학생 한 명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을 위해, 이 체계가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



전문가 칼럼

# 아름다운 동행

성수중학교 교장 김영삼

※ 본 칼럼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제14회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심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1차 심사를 거쳐 올라온 사례들은 모두 빛나는 삶의 기록이었다. 교육이 삶이고 삶이 교육이 되는 현장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어 참 좋았다. 사례 제목과 내용이 일관되게 가리키는 방향은 '동행'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찾는 것, 기다려 주는 것 그래서 결국 학생과 교사 서로가 애정하고 신뢰하는 삶의 동지가 되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고개가 숙여질 뿐이었다. 함께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더해보고자 한다.

첫째, 동행은 상호적인 것이지 일방적인 것일 수 없다. 교사는 도와주는 자, 학생은 도움이 필요한 자로만 정리될 수 없다. 어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을 수 있으나 학생과 교사는 상호적 관계 속에 동행하는 존재이다.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변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변화 못지않게 교사의 변화를 살필 수 있을 때 관계의 깊이를 체감하게 된다. 제14회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어요'와 더불어 교사 자신에게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동행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자는 자신의 정치에 대한 견해를 말하면서 위민(爲民)과 여민(與民)을 아래와 같

이 구별하였다.

공자가 지향한 이상적인 정치는 단순히 백성에게 혜택을 베푸는 (爲民) 수준을 넘어, 백성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의 삶에 함께 참여하며 기쁨을 나누는 (與民) 정치에 가깝다. 위민적 관점에서 학생을 만나는 교사는 늘 자기가 한 시혜적 활동에 대한 학생의 감사 표현을 갈망하게 된다.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사들이 빠지기 쉬운 일상의 감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동행의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민적 접근으로 학생과 더불어 공감하고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여민적 관계는 교사만의 변화가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해 가는 존재이며 책임 있는 자기 결정의 힘을 길러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교육적 방향성이 명확해져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위(Wee) 프로젝트가 위(Wee) 클래스 차원을 넘어 학교 차원에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위(Wee) 프로젝트 운영계획에 따르면 위(Wee) 클래스 운영계획 필수 포함 사항으로 보호자 및 교사에 대한 상담·자문, 교육지원, 학교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 활성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교사들의 기본적인 상담 역량 증대를 위한 상담 자문과 교육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급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 대부분의 시간을 책임지고 함께하고 있다. 일상적 교육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적 접근, 기본적 상담 전문성이 갖춰져야 위(Wee) 클래스를 설치, 운영하는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것이다. 교사들의 상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과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 지향하는 협력적 운영체계와 함께하는 변

구분	위민 (爲民)	여민 (與民)
백성의 역할	수혜자, 보호의 대상	참여자, 통치의 파트너
통치자의 태도	시혜적, 일방적 제공	공유적, 쌍방향적 참여
정치 관계	상하 관계 (위에서 아래로)	협력 관계 (함께 더불어)
핵심 가치	선한 다스림 (선정)	백성과의 공감 및 화합



화가 필요하다.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팀 활동을 통해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의하고 협력하고 협업하면서 예방적 접근, 맞춤형 지원, 위기 대응, 조직적 대처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위(Wee) 클래스에겐 낯선 협력적 문제해결의 방법에도 도전하고 경험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동행은 학생들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직원들과도 함께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성장의 기회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 상담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학교 밖에도 학생 청소년 상담을 지원하는 많은 공적 기관들이 있다. 학교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상담을 자리 잡게 하고 상담 전문인력을 배치한 것은 학교 밖 상담체계와 다른 학교 교육활동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상담 활동을 구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담자의 비밀 보장이라는 기본 전제를 두면서도 다른 교직원들과 협력적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생 성장, 위기 대응의 집단적 대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상담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학생에 대해 협력적으로 함께 해야 할 것과 조심하거나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학생에 대한 집단적 이해를 높이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 상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직원들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한 교육적 동행 방안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전문상담인력 양성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상담의 범주 확대에 대해 고민해 본다. 심리 상담, 생활 교육 측면의 상담, 사회정서학습 연관된 상담뿐만 아니라 학습 상담에 대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고등학생 대부분이 고민하는 학습과 관련하여 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학습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과 심리·행동이 깊은 상호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MTSS(다층적 지원체계) 시스템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교 교육 프레임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 교사들의 학습 상담 전문성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인지, 심리·행동 상담과 관련성을 가진 교육활동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삶 전반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모든 교육활동이 교사, 학생 동행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동행의 출발은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나를 넘어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집단적 실천의 노력이 이어져야 하고 그것이 날줄과 씨줄로 엮일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운영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계를 넘는 실천으로 길을 만들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상담이 교육이자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소중한 활동들을 기어코 만들고 계신 현장 선생님들의 수고와 분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글을 마친다.

 현장의 소리 위(Wee) 클래스

# 겨울, 아이들의 마음을 데우는 시간 - 대구매곡초 위(Wee) 클래스 이야기

대구매곡초등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김민희



겨울이 되면 학생들의 옷은 두꺼워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다치곤 합니다. 새 학년을 앞두고 느끼는 막연한 부담, 친구와의 사소한 갈등, 집에서 말하지 못한 걱정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까지... 아이들의 하루에는

생각보다 많은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위(Wee) 클래스는 이런 마음들이 잠시 내려앉아 쉴 수 있는 작은 쉼터입니다. 교실과 복도 사이, 학교 한가운데 자리한 위(Wee) 클래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소파가 반겨 줍니다. '위(Wee)'는 We(우리),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Wee) 클래스는 이름 그대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감정을 함께 살피고 교육적으로 지지하는 마음건강 공간입니다.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일부 학생만이 아니라, 잠시 흔들리는 모든 학생이 찾아와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여기는 혼나지 않는 곳이야” - 위(Wee) 클래스가 지키는 약속

위(Wee) 클래스를 처음 방문한 학생에게 제가 가장 먼저 건네는 말은 늘 같습니다.

“여기는 혼나지 않는 곳이야. 어떤 마음이라도 이야기해도 괜찮은 곳이란단.”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고민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학원과 숙제, 친구와의 거리감, 형제·자매 갈등, 부모님의 기대와 걱정,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불안까지... 어떤 친구는 “그냥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라고, 또 다른 친구는 “친구들이 장난이라고 하지만 저는 속상해요.”라고 말문을 엽니다. 위(Wee) 클래스는 이 말들 뒤에 숨어 있는 감정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개별 상담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말

할 준비가 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립니다. 감정카드를 한 장씩 고르며 “요즘 내 마음은 어떤 감정에 가까울까?”를 함께 살펴 보고 블록과 인형으로 ‘내 마음 집’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은 그림과 놀이, 몸의 감각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내가 이런 기분이 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 감정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아이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담임교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학교·지역·전문기관이 협력하는 통합 지원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위(Wee) 클래스는 학교 안에서 시작되는 마음건강 1차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서성장지원 주간, 학교가 하나의 ‘마음 축제장’이 되다

2025학년도 대구매곡초등학교는 학기 초, 「위(Wee) 클래스 홍보 및 정서성장지원 주간」을 운영하며 학교 전체가 함께 아이들의 마음을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밝은 색감의 정서성장지원 주간 홍보 포스터입니다. 복도와 계단, 교실 앞에 게시된 포스터에는 위(Wee) 클래스를 상징하는 따뜻한 색과 문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주간 동안 위(Wee) 클래스는 더욱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누구나 들러 아로마 향을 맡으며 ‘땡큐 일기’를 읽어줍니다. ‘땡큐 일기’ 쓰기 행사는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떠올려보며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보는 행사입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한 친구가 “오늘은 엄마가 맛있는 아침을 차려주셔서 땡큐합니다.”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친구가 “나는 어제 언니가 놀아줘서 땡큐!”라고 대답했습니다. 잠깐의 대화였지만, 서로의 마음을 가볍게 나누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서성장지원 주간에는 위(Wee) 클래스 문을 열어 놓고 ‘상담실은 특별한 아이들만 가는 곳

아니다.”, “누구나 마음을 돌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5학년도 위(Wee) 클래스 홍보 및 정서성장지원 주간 포스터

**마음챙김 동아리 「m&m's」**  
-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

우리 학교 위(Wee) 클래스에서는 초·중·고 마음챙김 동아리 운영 사업에 참여하여 마음챙김 동아리 「m&m's(엠앤엠스)」



마음챙김 동아리 「m&m's」 바디 스캔 및 호흡 명상 장면

를 운영했습니다. 이름처럼 mindfulness(마음챙김)와 me(나)를 소중히 돌보자는 의미를 담은 이 동아리에는 고학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아이들은 “마음챙김이 뭐예요?”, “명상이면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의자를 조금 뒤로 밀고, 등을 기대거나 바닥에 누운 채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가슴과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몸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지, 생각에 빠지더라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 등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이후에는 전신의 감각을 느껴 보는 바디 스캔, 교정을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에 집중하는 걷기 마음챙김, 초콜릿 한 조각을 오감으로 느껴 보는 감각 챙김 활동, 시험 전 긴장을 줄이는 짧은 호흡법 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활동을 마친 후 학생들은 활동 보고서에 “숨 쉬는 연습을 했더니 시험 볼 때 덜 떨렸어요.”, “짜증이 날 때 잠깐 멈추고 숨을 쉬어 보려고 노력해요.”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마음챙김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나’를 알아차리는 연습이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직원 마음챙김 주간 - 교사가 먼저 나를 돌보는 연습**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사가 지치고 소진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교실에서 제대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2025년 5월 26일(월)부터 5월 30일(금)까지 5일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직원 마음챙김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교직원 마음챙김 주간 동안은 위(Wee) 클래스가 교직원을 위한 마음 쉼터로 변신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과 업무 사이 짧은 빈 시간에 위(Wee) 클래스를 찾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직원이 참여한 심리검사는 TCI(기질 및 성격검사), MMPI-2(다면적 인성검사), MBTI 성격유형검사, SCT(문장완성검사) 총 4종의 심리검사 중 2개를 선택하여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개인에게만 제공하였고 희망 교직원에게는 전문상담 교사가 해석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내가 왜 회의나 수업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겠다.”, “요즘 유난히 예민해진 이유를 수치로 확인하니 마음이 편하다.”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관찰은 잘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쳐 있었네요.”라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래도 버티고 있는 나 자신이 꽤 대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직원 마음챙김 주간에는 심리검사뿐 아니라 아로마 마음챙김 물품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설문 조사를 통해 교직원 개개인이 선

호하는 향과 용도를 파악한 뒤 2종의 아로마 용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교실 책상 위에 아로마 인헤일러(inhaler)를 두고 또 어떤 선생님은 집에서 잠들기 전 베개 옆에 롤온을 두고 사용하며 "하루의 끝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작은 향기 하나가 긴 하루를 버텨낸 마음을 위로해 주는 '작은 휴식 버튼'이 되었습니다. 교직원 마음챙김 주간이 특별했던 이유는 '교사도 돌봄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학생과 보호자, 학교를 위해 끊임없이 내어주던 교사가 "이번 주만큼은 나를 위해 감사한 장, 차한 잔, 향기 하나를 선택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경험이야말로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예방 활동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 겨울, 아이들의 마음 위에 따뜻한 담요 한 장을

날씨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교정의 나뭇가지도 앙상해지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계절이 오고 갑니다. 어

떤 아이에게는 지금이 눈보라 치는 한겨울일 수 있고 또 다른 아이에게는 포근한 봄 날씨일 수도 있습니다. 대구매곡초등학교 위(Wee) 클래스는 각 계절의 온도에 맞추어 아이들 곁에 서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혹은 우리 반 학생이 평소보다 쉽게 짜증을 내고, 말수가 줄어들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보인다면 그것은 "나 요즘 좀 힘들어."라는 작은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 신호를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기 위해 위(Wee) 클래스는 오늘도 조용히 문을 열어 놓고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올겨울, 위(Wee) 클래스가 아이들의 마음 위에 따뜻한 담요 한 장을 덮어 줄 수 있기를,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함께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과 친구가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어른 모두가 다음 계절을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소리 | 위(Wee) 센터

# 학교 곁에서 함께 숨 쉬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사업 2년 차, 마음을 따라 걸어간 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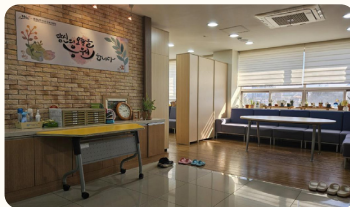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실장 김병구

Newsletter



2025년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는 유난히 숨 가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던 봄, 여러 학교에서 “어디서부터 도와야 할까요?”라는 다급한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은 어느 해보다 예민하게 흔들렸고, 교사들은 “아이들이 왠지 예전 같지 않아요.”라며 걱정을 전했습니다. 학년이 깊어질수록 상담 요청은

개선하기 위해 1년 차에 처음으로 행정직 주무관이 정식 배치되었고 이는 센터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무관 선생님이 행정영역을 담당해주시면서, 위(Wee) 센터 전문상담 인력들은 학생 상담과 학교 지원에 훨씬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시범사업 2년 차 운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가 위기지원팀, 상담지원팀, 교육지원팀의 3개 팀 체계로 운영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내부 모습

더욱 많아졌고, 2학기에는 “지금 바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절박한 부탁도 적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학생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는 그 곁에서 어떻게 더 부드럽고 신속하게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러한 고민에 실제로 힘을 보탤 수 있었던,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사업 2년 차의 중심에 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사업 2년차의 시작 - ‘옆에 있어 주는 센터’가 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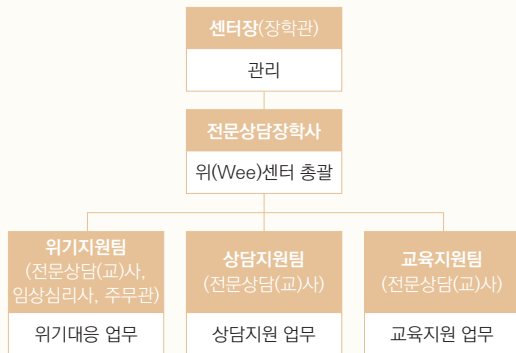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의 변화는 지난해 시범사업 1년 차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문상담인력이 예산·문서·지출 업무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상담과 위기 개입에 집중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면서 역할과 기능이 한층 더 명확해졌습니다.

- **위기지원팀**은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 사안을 중심으로 학교 위기 개입 담당
- **상담지원팀**은 일상적인 상담 사례관리와 보호자·교사 상담지원, 전문 자문 요청 담당
- **교육지원팀**은 예방 중심의 교육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 담당

또한 전문상담장학사가 새롭게 배치되며 센터의 전체 운영 방향과 자문체계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위(Wee) 센터 전체 운영을 관리하고 자문 흐름을 살피며, 누군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예방과 교육을 위해 학교 사이를 오가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과 기능 강화가 더해지면서, 충

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는 학교가 “지금 문이 드려도 될까요?”라고 편안하게 연락할 수 있는, 이전보다 더욱 가까운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운영 조직도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전문자문단 - 학교의 마음에 전문가의 숨결을 더하다

올해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자문체계의 중심에는 더욱 고도화된 전문자문단이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관내 학교급별 고경력 전문상담인력 등 총 16명이 위촉되어 구성된 위(Wee) 센터 전문자문단은 학교의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필요한 순간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체계적 자문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위(Wee) 센터 전문자문단은 무엇보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자문을 중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자살·자해 위험, 등교 거부

등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 위기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즉각적인 자문을 제공했고, 일상적인 학급·학생 문제에는 위(Wee) 클래스 컨설팅(솔루션 회의)을 통해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미배치교)를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 자문을 제공했다는 점은 단순한 자문 제공을 넘어 학교 간 상담자원 격차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위(Wee) 센터 전문자문단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담임교사·관리자·보호자와 함께 학생 상황을 점검한 뒤, 개입 순서와 지원 전략을 정리하자, 교사들은 ‘상담 인력이 없는 학교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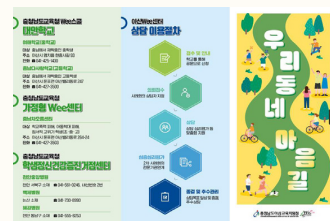
### 연계기관 마음지도 - 학교가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올해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는 학교가 필요한 기관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마음지도(우리동네 마음길)’ 리플릿을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 리플릿은 아산 지역의 정신건강·상담·치료 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로,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어떤 기관에, 어떤 사안을 맡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미배치교)에서는 기관 정보 접근이 어려워 위기학생 연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마음지도 제작은 이러한 상담 공백을 줄이고 학교의 위기관리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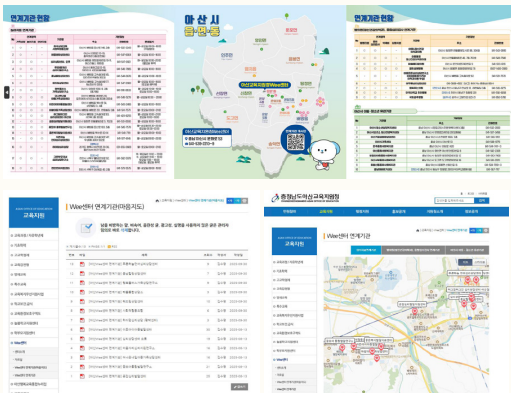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모습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마음지도 [우리동네마음길] 리플릿

음지도 제작 과정에서는 각 연계기관의 특화 상담 분야(개인, 가족상담), 학급 단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례, 이주배경 학생 상담 경험, 트라우마 상담 및 교육 경험 등을 세심하게 조사하여 반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학교상담자뿐 아니라 미배치 교에서도 바로 확인하고 적절한 기관과 연결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누리집에 연계기관 지도(지역별 위치 안내)를 추가로 게시해 기관 선택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마음지도는 단순한 자료집이 아니라, 학교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를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든 현장 중심 지원 도구였으며, 결국 학생 한 명 한 명이 필요한 지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활용한 위(Wee) 센터 연계기관 정보 안내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전문상담장학사 배치로 자문 중심 체계는 한층 안정되었습니다.

위(Wee) 센터 전문자문단은 학교의 마음 고민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었고, 찾아가는 자문은 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와 센터가 함께 움직이게 하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Newsletter

이 모든 시간 속에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결국 학생 한 명, 한 명의 변화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다시 등교를 시작했고, 어떤 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떤 학생은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는 앞으로도 학교 곁에서 조용히 숨을 맞추며, 학생·교사·가정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같은 자리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마음을 돌보는 일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2026년에도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는 학교와 학생과 함께 '놓치지 않는 상담'을 위해 성실하게 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 학교-센터-지역이 함께 만든 변화와 2025년의 마무리

2025년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협력'이었습니다. 학교는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학교로 찾아가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사회 기관들이 더해지면서,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교-센터-지역의 협력 구조가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 덕분에 위기 학생을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범사업 1년 차에 다졌던 기반 위에서 2년 차에 더 단단하게 자리 잡은 결과였습니다. 행정이 분리되면서



현장의 소리 위(Wee) 스쿨

#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우리(Wee) - ‘돈보스코 예방교육’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학업중단 위기 극복 -

광주광역시교육청 위(Wee) 스쿨 기쁨과 희망의 돈보스코학교 교무부장 이효지



살레시오수도회 창립자 돈보스코 성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기쁨과 희망의 돈보스코학교’는 ‘삶에 기쁨을, 가슴에 희망을’이라는 교훈 아래 광주광역시 관내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위(Wee) 스쿨이다.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학생들이 각자가 지닌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학교라는 울타리의 안정성을 깨닫도록 도운 결과, 2010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1,950여명의 학생이 수료한 후 재적교로 복귀하였다.



돈보스코학교 전경

## 돈보스코 예방교육은?

자존감을 상실한 채로 위(Wee) 스쿨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을 위해, 본교 교직원 모두는 교육활동 및 일상 전반에서 ‘돈보스코 예방교육’을 실천하며 존중과 사랑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방교육은 ‘미리 시작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으로, 교육자가 솔선수범하며 청소년들의 성장을 전폭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과 교육자 간의 우호적인 관계에서 학생의 타고난 자질과 역량

을 일깨워주고 나아가 선한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돈보스코 예방교육은 본교의 교육철학이자 목표이며 방법이다.

## “교육은 마음의 일입니다.” - 맞춤형 상담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 및 내적 치유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접수상담’ 중 실시하는 심리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학생의 주 호소문제를 파악하고, 나아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을 이해한다. → 접수상담을 완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비적응교육’을 제공하는데, 이는 협동·심신 단련 프로그램, 교과 체험 등을 통해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학교 적응력을 향상하는 과정이다. → 학생들은 본교 위탁교육 기간 중의 다회기 ‘정기상담’을 통해 호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정기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이 인지되면 교사들이 즉각 개입하여 문제상황이 커지는 것을 예방한다. → 그밖에 자기성장 프로그램· 정서예술 프로그램· 대인관계 프로그램 등의 ‘집단상담’을 진행하며 학생에게 필요한 상담 환경을 제공한다.

##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하십시오.”

### - 존중의 교육

존중과 사랑을 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의 동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학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교사가 함께’를 원칙으로 교과 시간 및 휴식(식사)시간 등의 모든 일상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한다. 교사들은 매일 등·하교 시간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잘 왔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며 인사하고 격려한다. 또한, 다양한 아침 간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결식을 해결하고 출석을 독려하며, 자연스러운 상담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학생이 학교생활 중 선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선심 카드를 부여하고 표창하며, 크고 작은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돕는다.

**“뛰고, 놀고, 소리쳐라. 다만 죄를 짓지 마라.”**

**- 다양한 특색 교육활동**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보통교과 외에도 내면의 힘을 키워 올바른 성품과 가치를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작물을 직접 심고 가꾸며 자연과 노동의 소중함을 배우는 '노작활동',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문화탐방',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생태학습', 삶의 참다운 가치를 배우는 '마음공부' 등 인성 영역의 대안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는 학기당 10~12회기 정도의 모든 교과를 융합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험 중심의 학습(등산, 수 놀이마당, 5.18민주화운동 교육, 해양레저 체험, 중독예방캠프, 공동체 놀이마당, 농촌환경·동물복지 체험, 스포츠한마당, 문화 기행 등)을 제공한다.

**“현재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고,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을 주십시오.” - 진로교육**

우리는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요가체조 및 명상, 보컬, 대중음악의 이해, 도예, 풍선아트, 공예 등의 교과를 운영하여 다양한 취미와 특기를 계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 학기 진로 관련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지역 내 대학과 기업을 탐방하기도 하며, 다방면의 직업 멘토를 초청하여 실질적 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 - 공동체교육**

본교는 연간 6회기의 학부모교육을 통해 가정과 학교가 같은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연간 2회기 약 20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인 가족캠프를 진행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작물 나눔, 학교 주변 정화 활동을 하며 주변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 교사들은 이처럼 '나'를 위한 교육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한 교육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보고, 가족·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돈보스코학교에 다니면서 선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느새 밝고 씩씩하게 변해버린 저의 모습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 학생 소감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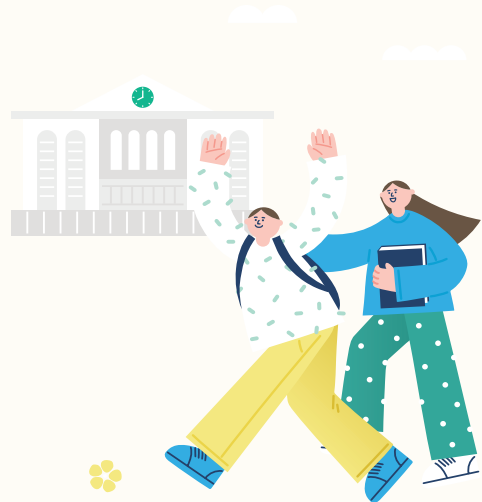


돈보스코학교 단체 사진

‘돈보스코 예방교육’이라는 귀한 가르침으로 단단하게 무장하여, 개교 이래 지금까지 우리 돈보스코학교는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실천해 왔다. 흔들림 없는 꾸준함은 본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90% 이상)로 이어졌고, 관계 기관의 귀감이 되어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기쁘고 희망찬 일상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여 자신의 가치와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돈보스코학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천하며 학생들의 길을 지키고자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너’이기 때문이라네.” - 돈 보스코*



 **현장의 소리** | 병원형 위(Wee)센터

# 참사랑도담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병원형 위(Wee)센터 교무부장 **백윤경**



인천광역시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과 연계하여 인천지역 내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2025년 5월 19일 개소했습니다.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팀**

- **구분:** 서부/강화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지원
- **구성:**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교원, 안전요원
- **정원:** 중·고 학생(간담입원 4명+ 위탁입원 12명)
- **교육과정:** 보통교과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 **특징(입원을 통한 치료와 교육 병행)**
  - 입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 퇴소 후 3개월간 정신건강 전문가 추수지도

**참사랑 도담학교**

- **구분:** 맞춤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구성:**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교원, 안전요원
- **정원:** 중·고 학생(간담입원 4명+ 위탁입원 12명)
- **교육과정:** 보통교과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 **특징(입원을 통한 치료와 교육 병행)**
  - 입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 퇴소 후 3개월간 정신건강 전문가 추수지도

**설립추진 배경 :**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병원이 함께 걸어온 길**

인천참사랑병원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병원'이라는 미션과 비전 아래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 해결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치료를 실천해 온 민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는 2014년 서부교육지원청 청소년 금연 클리닉 사업, 2016년 학생정서행동발달 지원사업 운영을 시작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증진시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 프로

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2017년 4월 부설 킬리안 정서행동연구소를 통해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킬리안공감학교(외래형)를 설립하여 정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전문상담 제공과 학업 유지를 통한 학교 현장 복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2019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위(Wee) 센터에 정신과전문의를 파견하여 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치료 전문의 사업, 2021년 정신건강 의료 전문팀이 학교에 방문하여 고위험군 학생들을 발굴하는 단기개입치료를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 아웃리치 형태의 사업 기획과 운영을 통한 다년간의 학생 사업 운영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기반하여 2025년에 학생들이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집중치료를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 시기에 맞게 치료받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기 정신건강 개입 및 지원에 대한 시스템 안정과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병원형 위(Wee)센터 참사랑도담학교(입원형)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설립 추진 경과 및 노력**

- 2024.6. 인천시의회 [교육, 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소아정신건강 전문병동 설치 필요성 제기
- 2024.9.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지원사업과 입원과 치료를 병행 가능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치 관련 인천광역시 내 시립 의료원, 민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담당자 간 협의회 진행
- 2024.9. ~ 12.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비 예산 편성, 예산 안 심의 및 확정
- 2025.1. ~ 2. 병원형 위(Wee)센터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병동학급) 수행기관 공모, 심사, 협약 체결  
※ 위탁기간: 2025. 3. ~ 2026. 2.
- 2025.2. ~ 4. 병원형 위(Wee)센터 기반 구축(리모델링, 청소년 재활병동 기관 방문, 센터 인력 채용 등)

- 2025.3. ~ 5. 청소년 재활전용병동 리모델링 진행 / 치료팀 구성, 회의체 운영 및 정기 스터디 진행
- 2025.3. ~ 5. 맞춤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치료비 및 교육과정 구성 협의 진행
- 2025.4. 인천광역시 학교 대상 병원형 위(Wee)센터 이용 안내 공문 실시 및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상담 개시
- 2025.5.19. 병원형 위(Wee)센터 개소  
※ 개소식 '25.5.27.(화)



**참사랑도담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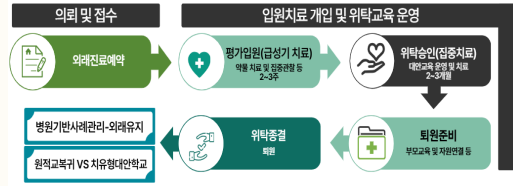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인 참사랑도담학교는 아이들의 튼튼한 마음성장과 밝은 내일을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입원형 병동학급으로 치료·교육·상담을 병행하여 건강하게 학교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담이란?**  
도담하다는 어근으로 아무지고 탐스럽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도담도담(부사)은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자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순우리말로 참사랑도담학교는 학생들이 튼튼하게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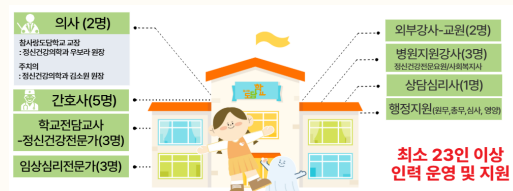
**참사랑도담학교 운영 개요**

설립일	위탁기간	정원	운영형태
2025.5.19.	3개월 이내	16명	맞춤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중/고 통합)

참사랑도담학교의 치료시스템은 학생정신건강 위기 문제로 발생하는 급성기 증상치료와 안정을 우선적으로 개입하여 학생을 보호하고, 증상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대안교육과 정신병리적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만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사랑도담학교 인력현황**



의료적 치료공간 안에서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을 통한 24시간 다학제적 병동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사랑도담학교 중심치료 및 교육과정**

참사랑도담학교(병동학급) 중심 치료인 DBT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변증법적행동치료)는 자살 고위험환자 근거기반 치료법으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환자들에 쓰이는 범용성 높은 치료입니다.

교육과정은 일반교과, 치료교과, 대안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주 25시수의 학업인정 시스템으로 집단치료프로그램과 수업이 운영됩니다.



참사랑 도담학교 집단치료 프로그램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	마음챙김훈련	가족집단치료	경험중심 사회기술훈련	동기강화훈련	심리치료극	마음도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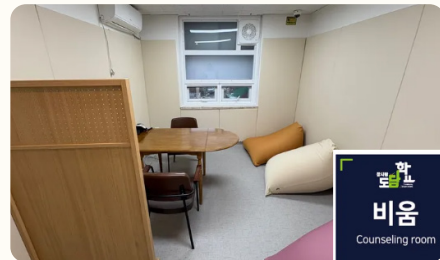
참사랑도담학교 개인치료

- ☑ 정신건강분야 전문가(임상심리 전문가)가 학생 및 보호자(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과적 면담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지원합니다.
- ☑ 개별 생활상담 및 심층 심리상담을 상시 지원하여 위탁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정서로의 유입,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합니다.
- ☑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상담을 통해 학생이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야기하게 만드는 심리적, 정서적, 대인관계적 특성을 파악합니다.
- ☑ 학생 개인에게 맞춘 교육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학생의 인성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프로그램 참여 기간 중 나타난 문제 특성을 이해하며,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변화를 비교 평가합니다.
- ☑ 병원 기반 사례관리: 퇴원한 도담학교 학생에게 사례관리팀이 꾸준한 정기적인 상담과 보호자지원, 자원 연결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원부터 외래까지 원스톱 관리를 통한 원적교 복귀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실 (세움)

너와 나를 우리로 세우는 곳이라는 뜻으로 환자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치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담실 (비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마음을 비우고 정돈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사랑도담학교 공간

(단위: 개)

시설명	교실	교무실 (간호사실)	상담실 및 안정실	병실	화장실	샤워실	합계
수량	1	1	1	3	1	1	8

참사랑도담학교 생활 및 치료 공간은 각 실에 이름을 부여하고 학생들과 치유의 의미를 공유합니다.



교무실 (이음)

병원과 학교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가 함께 이어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

2025년 학교상담 리더 양성 연수 참여 후기



천안북중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김아람

## 현장을 잇는 힘, 서로에게서 배우는 학교상담 리더 연수 이야기

「2025 역량체계 기반 학교상담 리더 양성 연수」에 참여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느낀 것은 '연대'였습니다. 학교상담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모였다는 사실 자체로 큰 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정의 기준을 통과해 선발된 전문상담교사 1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현장에서 필요한 실천 역량을 채워가는 과정은 '현장 리더십'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교상담 리더 양성 연수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연수(개인상담 실습, 위기상담 사례 공유 및 토론, 프로그램 개발, 정책 이해와 토론 등)에 이어 대면 집합 연수에서는 실제 수행 중심의 내용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학교상담 수퍼비전 연습, 집단상담 실습, 심리검사 수퍼비전까지... 서로가 상담자로 시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순간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마주해 온 복합 사례를 솔직하게 꺼내놓고 더 나은 대응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은 '모이면 시작이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몸으로 익혔다는 점도 큰 의미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이론보다 실습이 중심이었기에 '학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학교 상담 리더로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실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둠별로 이어진 자기개발의 순간들은 상담자로서의 성찰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실천 역량을  
채워가는 과정은 '현장 리더십'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시간이  
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표준과정안을 기반으로 하되 강사별 역량에 따라 진행 방식의 온도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었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지역별 상담교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었다면,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때 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실제 이번 연수 참여자 중에는 이미 충분한 실천 역량을 갖춘 분들이 많았기에, 다음에는 학교상담 리더 연수를 이수한 선생님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방식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연수 운영팀의 세심한 배려는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적극적인 안내와 친절한 응대, 틈틈이 챙겨준 간식, 쾌적한 숙소와 연수장은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 주었습니다. 학교 상담 캐릭터 '마음이'로 제작된 굿즈(밴드, 가방, 볼펜 등)도 받았는데, 실용적이면서도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이어서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순간까지 따뜻함이 스며 있었고, 그 덕분에 참여자들도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상담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각자의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 매일 애쓰는 학교상담자들이 서로의 좋은 모델이 되어준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저 또한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배움의 자리가 계속 이어져, 지역을 돌보고 현장을 지지하는 상담 리더들이 더 많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  
박수연

**학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한 걸음 더 성장하여 미래의  
실천을 설계하는 데 의미 있는  
발판이 되었다.**

## 학교 공동체의 희망을 키우는 리더로 내 역할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배움의 순간

학교상담 리더 연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자기 성장과 상담 지원 역량까지 함께 강화하도록 설계된 통합형 전문 연수 과정이었다. 온라인 연수부터 과제 수행,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그리고 마지막 대면 집합 연수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마치 학교상담자로서의 나를 차분히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씩 쌓아가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먼저 온라인 연수 '학교상담자를 위한 학교상담의 실제'는 나만의 속도에 맞춰 학습하면서도 상담 현장에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개념도 다시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고, 나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학생을 대할 때의 나의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세 가지 과제 수행은 사례를 분석하고 나의 상담 사례를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로서의 나를 더 들여다볼 수 있었다. 내가 익숙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방식들을 자각할 수 있었고, 그 성찰은 나를 반성하게도 했고 앞으로 더 채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에서는 경험과 고민, 실천이 공유되며 서로에게 깊은 배움이 되었다. 상담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책임과 권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또한 정책 이해와 토론을 통해 학교 상담체계의 큰 흐름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학교상담자의 역할을 개인 수준이 아닌, 확장해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대면 집합 연수는 지금까지의 연수 과정을 차곡차곡 쌓아 완성하는 시간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다. 온라인 학습에서 익힌 이론과 과제를 통해 점

검한 관점,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에서 실험했던 프로그램과 토론 경험이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경험은 이전 실시간 쌍방향 원격 연수를 통해 생성형 시를 활용해 개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해 보는 실습이었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에서 설계했던 프로그램이 실제 집단 속에서 작동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프로그램 개발이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 활동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방식이 보다 확장되고 창의적으로 변화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기대감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몰입되는 경험이었다.

이번 연수의 경험을 통해 나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연결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용한 동행이며, 그 동행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번 연수에서 경험한 실습과 상호작용은 학교상담자로서 자신감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동기가 되어 주었다.

이번 연수에서 얻은 통찰과 실천 경험은, 학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한 걸음 더 성장하여 미래의 실천을 설계하는 데 의미 있는 발판이 되었다. 그리고 동료교사와 함께 뜻뜻하고 단단한 상담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



이슈브리프

# 함께 성장하는 학교상담, 학교상담 리더의 길을 열다

서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이지혜

※ 본 이슈 브리프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 불안, 자해, 대인관계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관여하여 상담 개입·회복을 끌어내는 학교상담자의 역할은 학교의 심리·정서 안전망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4년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전문상담(교)사 역량체계 및 연수표준안 마련을 통한 연수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정책은 이를 "(24.) 역량체계-연수표준안 마련 → (25.상-) 전문상담교사 선도교사 연수 운영 및 프로그램·교재 개발 → (25.하-) 전체 교원 연수 확장"으로 명확히 제시하며, 학교상담자 역량 강화가 학생 마음건강 정책의 실행 단계임을 강조합니다.

다. 이 정책의 첫 단계로 2024년에는 '학교상담자를 위한 직무역량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직무역량체계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교상담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핵심역량을 제시하며, 상담, 교육, 연계 협력, 행정 및 관리, 전문성 개발 등 5개 영역과 12개의 직무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량군 → 직무역량 → 수준(Level)'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학교상담자가 자신의 현재 역량 수준과 앞으로의 성장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직무역량체계는 학교상담 업무 전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틀이며, 모든 학교상담자가 이 역량을 고르게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역량군	직무 역량	역량 정의	역량 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상담	개인상담 역량 [A]	학생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개인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	상담이론 [A1]	상담기술 [A2]	개인상담 수퍼비전 [A3]
	집단상담 역량 [B]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집단상담이론 [B1]	집단상담기술 [B2]	집단상담 수퍼비전 [B3]
	심리검사 및 평가 역량 [C]	목적에 맞는 심리검사를 활용하고 평가 할 수 있는 역량	심리검사 및 심리 검사 도구 이해 [C1]	심리검사 시행 및 진단 [C2]	심리검사 결과 보고 및 평가 [C3]
	위기상담 및 지원 역량 [D]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위기상담에 대한 이해 [D1]	위기상담기술 및 위기 관리 방법 [D2]	위기상담 사례 관리 [D3]
교육	학부모 상담 및 교육 역량 [E]	가정에서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	자녀에 대한 이해 [E1]	학부모 상담 기술 [E2]	효과성 분석 및 개선 [E3]
	교직원 교육 (자문) 역량 [F]	학교에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정보제공 및 자문할 수 있는 역량	학생에 대한 이해 [F1]	교직원 교육 (자문) 기술 [F2]	효과성 분석 및 개선 [F3]

역량군	직무 역량	역량 정의	역량 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교육	학생 예방교육 역량 [G]	학생에게 필요한 심리적 성장과 다양한 문제 예방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역량	학생 예방교육에 대한 이해 [G1]	예방교육 시행 [G2]	효과성 분석 및 개선 [G3]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역량 [H]	다양한 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	프로그램 개발 방법에 대한 이해 [H1]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H2]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H3]
연계 협력	학생·학부모·교사 연계 협력 역량 [I]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간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	연계협력에 대한 이해 [I1]	연계협력 활동 [I2]	연계협력 성과 평가 [I3]
	지역사회(기관) 연계협력 역량 [J]	학생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지역사회 연계 협력에 대한 이해 [J1]	지역사회 연계협력 활동 [J2]	지역사회 연계 협력 성과평가 [J3]
행정 및 관리	학교상담 기획 역량 [K]	학교상담 관련 연계계획 수립,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기획 역량	기획·홍보에 대한 이해 [K1]	학교상담 기획·홍보 [K2]	학교상담 기획 홍보에 대한 평가 및 개선 [K3]
	학교상담 운영 및 관리 역량 [L]	상담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능력 및 상담환경 조성 역량	학교상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이해 [L1]	상담실 운영 및 관리 [L2]	사례관리 및 평가 [L3]
전문성 개발	자기개발 역량 [M]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로서의 자질 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	자기역량 이해 [M1]	자기개발 활동 [M2]	자기성찰 [M3]
	학교상담 슈퍼비전 역량 [N]	필요한 교육과 연구, 자문 및 슈퍼비전을 받거나, 자문 및 슈퍼비전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	상담 역량에 대한 이해 [N1]	내담자 및 슈퍼바이저 경험 [N2]	슈퍼비전 실시 [N3]
	정책이해 및 실천 역량 [O]	관련 다양한 정책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	정책에 대한 이해 [O1]	정책 실천 [O2]	성과분석 및 환류 [O3]

〈표 1〉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사 직무역량 체계(이지혜 외 2024)

2025년에 시작된 「학교상담 리더 양성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개별 학교상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 학교상담자들이 직무역량체계를 기반으로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를 양성하는 데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즉, 학교상담 리더는 학생 상담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이면서, 지역 단위에서 동료 학교상담자의 역량 향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상담 리더 연구는 직무역량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실천 중심의 60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교상담 리더는 상담, 교육, 연계 협력, 행정 및 관리, 전문성 개발 등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학습하며, 다른 학교상담자를 슈퍼비전 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강화합니다. 연구는 '기초 이론 학습 → 사례 중심의 실시간 토론 → 대면 실습과 슈퍼비전'

의 단계적 구조로 설계되어, 필요한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체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연구과정에서는 '학교상담자를 위한 학교상담의 실제'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학교상담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관련 지식을 폭넓게 다룹니다. 이 과정은 '학업상담', '진로상담', '다문화상담', '위기상담', '학부모 상담', '심리검사 및 평가', '교직원 자문', '지역사회 연계협력', '부적응 및 학교폭력 지원' 등 이론적 기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직무역량체계의 1수준 역량을 고르게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학교상담자는 현장에서 마주치는 대표 상담 영역에 대한 기초 이해를 다지고, 실습 단계에 필요한 사전 지식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됩니다.

이어지는 2수준에 해당하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는 온라인 콘텐츠 학습을 실제 상담 상황에 적용하는 단계로 '개인상담 실습', '위기상담 사례 공유 및 토론', '생성형 시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상담 관련 법적 사례 및 토론', '정책이해와 토론' 등 실습·사례 중심·토의 기반의 학습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개인상담 실습'에서는 인지치료와 계슈탈트 치료와 같은 주요 상담 이론을 모의 사례에 적용하여 상담 기법을 실제로 활용해 보며, '프로그램 개발 과목'에서는 생성형 시를 활용하여 8~10회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위기상담 사례 공유 및 토론' 수업에서는 다양한 학교급·상황별 위기 사례를 나누고, 타인의 개입 전략을 자신의 상담 실천에 적용해 보는 과정을 통해 위기상담 판단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3수준에 해당하는 대면 집합 연수는 현장 실천 역량과 수퍼비전 능력을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학교상담 수퍼비전 실습'과 '심리검사 수퍼비전 실습'에서는 2수준 과정 중 수행한 개인상담 과제와 심리검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상호 수퍼비전을 진행하며, 수퍼바이저로서 지도하고 피드백받는 경험을 동시에 학습합니다. 수퍼비전은 학교상담자(supervisee, 수퍼바이저)가 보다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험이 많은 학교상담자(수퍼바이저)가 상담사례를 지도하고 지원하는 전문적 활동입니다. 수퍼비전은 단순한 사례 점검을 넘어,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 윤리적 기준 준수, 정서적 지원을 포괄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집니다.

'집단상담 실습' 시간에는 실시간 쌍방향 연수 과정 중 '생성형 시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과목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중 2회기에 대해 운영안을 실제로 구성하고 시연함으로써 집단상담 설계·진행 역량이 정교화됩니다. 더불어 '상담자 소진 회복 및 치유' 과목은 전문성 개발 역량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학교상담사의 소진 문제를 이해하고 실제 예방 및 회복 전략을 실습하여 지속 가능한 전문성 유지 능력과 자기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3단계 연수 구조는 학교상담 리더가 이론적 지식을 넘어 실천능력·수퍼비전 역량·전문성 지속 역량을 고르게 갖추도록 설계된 과정이며, 학교상담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상담 경험을 확장하고, 학교상담 리더로서 학교·지역사회에서 전문성을 나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		차시	강좌명	일정
개별 수행	온라인 콘텐츠	20	학교상담자를 위한 학교상담의 실제 (15차수)	7월~10월
			학교상담자를 위한 학교상담의 실제 2 (15차수)	
	과제	3	개인상담 사례보고서 작성 (집합 연수에 지참)	7월~11월
3		심리검사 사례보고서 작성 (집합 연수에 지참)		
2		위기상담 경험보고서 작성 (원격 연수에 지참)		
연수 참여	실시간 쌍방향 원격 연수	3	개인상담 실습	(1기) 10월 27~28일 (2기) 10월 30~31일
		2	위기상담 사례 공유 및 토론	
		3	생성형 시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2	상담 관련 법적 사례 및 토론	
		2	정책이해와 토론	
	대면 집합 연수	1	전체 연수 오리엔테이션(실시간)	(전체 연수 오리엔테이션) 7월 18일 (1기) 11월 27~29일 (2기) 12월 04~06일
		0.5	개회식	
		3	학교상담 수퍼비전 실습	
		3	심리검사 수퍼비전 실습	

운영 방식		차시	강좌명	일정
연수 참여	대면 집합 연수	3	집단상담 실습	(전체 연수 오리엔테이션) 7월 18일 (17) 11월 27~29일 (27) 12월 04~06일
		3	매체활용 상담 실습	
		3	상담자 소진 회복 및 치유	
		2	학교상담 콘서트	
		1	학교상담 라운드테이블	
		0.5	수료식	
합계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콘텐츠 20차시 :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콘텐츠 2개 과정 * 2개 과정(각 15차수) 모두 이수 시, 전체 연수의 20차시 이상으로 인정</li> <li>실시간 쌍방향 원격 연수 20차시 : 원격 연수(12차시) + 과제(8차시)</li> <li>대면 집합 연수 20차시 : OT(1차시), 개회식-수료식(1차시), 집합 연수(18차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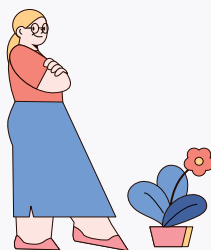
〈표 2〉 학교상담 리더 연수 구성 및 일정(이지혜 외, 2025)

이러한 학교상담 리더 연수는 지역 및 학교 간 상담 전문성의 격차를 줄이고, 시·도교육청이 공통 기준에 따라 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의 모든 학교상담자가 동일한 방향과 기준 아래 성장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연수로 기획·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학교상담 리더는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상담 전문성을 연결하고 확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며, 직무역량 체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이끄는 주도적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학교상담 리더 양성 연수」는 학교상담자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이 더 깊고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학교와 지역의 성장에 힘을 더하며 동료와 전문성을 나누는 '학교상담 리더'로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이지혜, 김민희, 김혜경, 최보라, 김가람, 김재형(2024).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역량체계 기반 직무연수 표준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지혜, 김민희, 최보라, 최은정, 이재용, 김은하, 김태선, 안정광, 구민정, 김정진, 남순임, 정유선, 허원태(2025). 역량체계 기반 학교상담 리더 연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청소년의 마음 길잡이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와 시사점<sup>1)</sup>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역량개발본부장 소수연

※ 본 이슈 브리프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래 청소년의 자살 및 자해, 우울 및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2022년 우리나라 9세~24세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0.8명으로 청소년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청소년(10~24세) 자살률 평균 5.9명에 비해 약 83% 높은 수치이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4). 자살은 2011년부터 13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로, 2위 안전사고, 3위 악성신생물(암)보다 높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을 전후로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자해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13~18세 청소년은 2012년에는 28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64명으로 228% 증가하였다(질병관리청, 2024). 또한 2023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해나 자살 시도 청소년 수가 2018년 4,944건, 2020년 5,386건, 2022년 7,540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학교폭력, 사이버도박, 사회적 고립·은둔 등 사회·기술 변화에 따라 새로운 청소년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4). 따라서 이와 같은 청소년의 심리·정서 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는 것은 현시대에 매우 중요한 해결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는 최전선에 바로 청소년상담사가 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는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상담 분야 유일의 국가자격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과 예방, 그리고 청소년의 복지와 성장을 위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상담 전문가이다. 자격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3년 이래로 2024년까지 41,091명(1급 1,836명, 2급 16,123명, 3급 23,432명)의 청소년상담

사가 배출되었고, 이들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뿐 아니라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정서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s://youthcounselor.or.kr:446/new/index.html>).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는 크게 자격검정과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으로 운영된다.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서류심사가 해당되며, 자격검정에서 최종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100시간의 자격연수를 이수하면 성평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자격검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연수와 보수교육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자격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상담사 양성 체계



출처: 성평등가족부(2025), 2024 청소년백서, p. 527.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새롭게 대두되는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성 제고를 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1. 청소년상담 분야의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자 중 학교상담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2023년 기준 21.0%), 2025년 학교상담 리더의 73.5%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학교상담인력 역량강화 방안 모색에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편집자 주).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청소년 기관·단체,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이와 같은 보수교육 의무대상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들의 심리·정서 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상담사 핵심역량과 매년 청소년상담사 대상 요구 조사 및 최신 청소년 이슈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보수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있다. 교육 형태는 이러닝 교육,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혼합교육(이러닝 교육+실시간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 전문과정으로 구분되며, 전문과정은 16시간이고 그 외는 8시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교육 주제는 '상담 사례개념화의 실제',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활용한 청소년상담' 등 상담 이론에 기반한 실습 교육, '웹슬러 지능검사 이해와 활용', '심리검사와 청소년 우울증' 등 청소년상담에서의 심리평가 및 심리검사 활용 방안, '자살·자해 전문과정', '도박중독 전문과정' 등 위기 문제 개입 중심의 전문과정과 같이 사회적 변화와 청소년상담 현장 요구에 발맞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상담사 소진관리 집단상담'과 같이 청소년상담사의 심리·정서 회복과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 형태와 과정을 개설하여, 청소년상담사가 속한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다각도의 시도를 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중에는 학교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근래 매년 학교에서는 학령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다양한 심리·정서 문제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개입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행동 발달을 지원하는 전문상담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한 학교에 한 명의 전문상담교사가 근무하고 있어,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상담을 진행할 때 자문이나 논의할 대상이 없는 환경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변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4~5명이 모여 주기적으로 집단 슈퍼비전을 받거나 스터디를 하는 등 함께 공부하는 기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지역 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전문성 강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체로 상담 환경과 대상이 유사하므로 공감대 형성이 잘 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권유한다. 물론 전문상담교사도 임용고시나 직무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개발하고 있지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을 취득하여 공적인 전문 상담 자격제도 내에서 관리를 받는 것은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성과 청소년안전망에서 청소년상담사의 핵심적 역할을 부여받을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이자 청소년상담사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 문제가 심화될수록 이에 대한 개입과 예방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행동하고 대변하는 옹호자 역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행복을 찾아가도록 지원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2023). 응급의료통계. 성평등가족부(2025). 2024 청소년백서. 질병관리청 (2024).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s://youthcounselor.or.kr:446/new/index.html>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4). 자살예방백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4). 위기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다. 2024 청소년상담복지포럼 자료집.

**참고자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자격연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구분	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 시험	면접
	선택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 시험	면접
	선택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필기 시험	면접
	선택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비고: "청소년 관련 법"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23조 제3항 관련)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 연수 시간 : 1급, 2급, 3급 : 100시간 (연수과제 및 이력연수 45시간 + 집합연수 56시간)
- 연수 수수료 : 매년, 실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
- 연수과목

등급	연수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상담 수퍼비전	실습, 세미나(윤리)
	청소년상담프로그램 개발	실습
	청소년 위기개입 II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경계성 성격장애, 조현병, 강박장애 & 공황장애
	청소년 문제세미나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도박 중독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청소년 정책, 조직관리 및 경영, 청소년 관련 법률
2급 청소년상담사급	청소년상담과정과 기법	상담 실습, 심리평가 및 해석 이론 및 실습
	지역사회상담	이론 및 세미나
	부모상담	이론 및 실습
	청소년 위기개입 I	성폭력, 자살·자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품행 장애
	청소년진로·학업상담	청소년 진로상담, 청소년 학업상담
3급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개인상담	실습
	청소년 집단상담	실습
	청소년 매체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청소년 상담현장론	세미나
	청소년 발달 문제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 수수료 자격 및 조건
-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청소년기본법 제22조)
- 연수과정의 평가 및 수수료는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성평등가족부 훈령 제89호)

출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5] (제13조 제1항 관련)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규정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홈페이지 [https://youthcounselor.or.kr:446/new/sub03\\_1.html](https://youthcounselor.or.kr:446/new/sub03_1.html)

소식

# 위(Wee),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 / 17개 시도교육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5년 학교상담 리더 양성 대면 집합연수

일시: (1기) 2025.11.27.(목)~11.29.(토)  
(2기) 2025.12.4.(목)~12.6.(토)  
장소: KB증권연수원 6층 대강의장1  
대상: 시·도교육청에서 선정된 교육생



#### 프로그램 일정표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09:00		조식/ 수업준비	조식/ 체크아웃
09:00~ 10:00	이동 및 등록		학교상담 라운드테이블
10:00~ 11:00		학교상담 수퍼비전 실습	학교상담 콘서트
11:00~ 12:00	입소식		
12:00~ 13:00	중식	중식	중식
13:00~ 14:00			퇴소식
14:00~ 15:00	상담자 소진 회복 및 치유 참여		
15:00~ 16:00		매체활용 상담 실습	
16:00~ 17:00			퇴소 / 이동
17:00~ 18:00	집단상담 실습	석식	
18:00~ 19:00		심리검사 수퍼비전	
19:00~ 21:00	만찬/ 네트워킹		
21:00~	개별 휴식	개별 휴식	

## 교육부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학생마음건강 정책 2025년 성과공유회

일정: 2025.12.8.(월) ~12.9(화)  
장소: 세종컨벤션센터  
대상: 학생 마음건강정책 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 프로그램 일정표(위(Wee) 프로젝트 분과)

시간	세부사항
13:00~13:30	등록
13:30~14:20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마음건강"
14:20~14:50	학생 마음건강정책 '25년 추진 결과 및 '26년 추진 방향
12/8	<p><b>희망대상 수상작 및 시범사업 우수사례 I</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너의 마음에도, 봄이 머물도록" - 제주해북병원형 위(Wee)센터 현봉미 실장</li> <li>• 2025년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 개편 시범사업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 경기도교육청 한시인 장학사</li> <li>• 위(Wee) 프로젝트, 함께의 가치로 성장하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권누리 장학사</li> </ul> <p><b>희망대상 수상작 및 시범사업 우수사례 II</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스로 삶의 가치와 방향을 찾는 다사랑 공동체 충남다사랑학교 - 충남다사랑학교 조성대 교무부장</li> <li>•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발표(기관부문)-대전남학생가정형 위(Wee)센터 이민호 실장</li> <li>• '학생의 아픔을 끌어안는 학교, 학생이 사랑하는 학교'- 파주중학교 임하은 전문상담교사</li> </ul> <p><b>지정토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김훈호 교수</li> <l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김영민 교수</li> </ul>
15:10~17:30	
10:00~10:50	"refresh up! 해설콘서트"
12/9	<p><b>위(Wee) 프로젝트 복합지원기관 현황 조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연구위원</li> </ul> <p><b>정서·행동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인교육대학교 정애경 교수</li> </ul>
11:00~12:30	



연구보고 25-위센터01

---

## 위(Wee) 뉴스레터

---

인 쇄 2025년 12월 29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단법인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